

김 태 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여성노숙인의 성 인식 연구

-거리노숙의 경험이 있는 여성노숙인을 중심으로-

200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김 용 희

여성노숙인의 성 인식 연구

- 거리노숙의 경험이 있는 여성노숙인을 중심으로 -

김 태 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김 용 희

인 준 서

김용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 태 현 (인)

심사위원 박 용 옥 (인)

심사위원 한 정 원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감사의 글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꼭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저에게 그 꼭 한번의 기회가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지만 다른 면에서, 저에게는 소중한 만남, 다양한 경험과 자기발전에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논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바쁘신 중에도 지도해 주신 김태현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논문을 꼼꼼히 봐주시고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한정원 교수님, 부족한 내용을 잡아주시고 논문의 질을 높여주신 박봉복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여성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이수자 교수님과 대학원 생활 내내 즐거움과 행복함을 맛꿀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여성학 동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의 논문에 아낌없는 조언과 마무리를 도와주신 영진여성센터 김진미 소장님, 하정희, 문정우 선생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꾸준히 격려해 준 이현주, 권정득, 이미란, 안선미, 송순영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늘 저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심어주시고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서정화 이사장님과 오은숙 선생님, 부족한 딸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 각순자 여사님 김봉숙, 김봉철, 이진수, 이주영, 사랑하는 가족들, 언마가 늘 바빠서 좋은 언마노릇도 못해주는 데 자랑스러워해 주는 사랑하는 우리 딸 은슬기, 아들 은현욱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이 논문이 여성노숙인의 삶을 좀 더 안전하게,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보호받고, 사회와 가족에게 복귀할 수 있는 지름길의 역할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논문개요

본 논문은 거리에서 만성화된 남성노숙인 틈에서 과연 여성노숙인은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시작되었다. 여성의 성은 순결해야 하며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부장제 구조에서, 거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보호받지 못하는 성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성노숙인의 성 인식을 바탕으로 심각한 성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노숙인이 인식하는 성의 의미, 여성성, 거리노숙에서 성의 안전성을 연구문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노숙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과 경험을 드러내도록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여성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 중 거리노숙의 경험이 있는 여성노숙인 11명을 선정하였다. 여성노숙인의 성 인식을 통해 거리노숙의 심각한 성 문제를 드러내고, 이러한 상황을 사회적 문제로 밝히고자 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거리노숙은 여성을 무차별한 폭력에 노출시키며, 이는 여성을 매우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이 드러났다. 거리의 여성노숙인은 용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성을 이용하기도 하고, 구걸과 종이 줍기를 한다. 이러한 용돈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여성노숙인의 자원이 된다. 또한 거리에서의 남성노숙인의 무차별한 폭력성은 여성노숙인에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성하며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도 한다. 이러한 거리환경은 여성노숙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폭력 앞에서 무력감으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다.

둘째, 여성노숙인의 성 인식에서 가치관을 중심으로 보면, 여성노숙인에게 성이란 여성과 남성의 삽입중심의 성 행위 또는 조건이 맞아야 안심하고 할 수 있는 행위로 인식을 한다. 여성노숙인은 또한 성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통제하고 차단해 버린다. 이러한 결과는 가부장제 구조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여성노숙인에게 여성성의 의미를 순결과 임신이라는 두 요소로 확대 본 결과, 먼저 가부장제 하에서의 순결 이데올로기는 여성노숙인에게 여성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척도로 이해되고 있었다. 반면 노숙 여성의 현실은 매우 척박하여, 원치 않는 임신과 임신중절을 경험하는 예가 있었다. 임신 관련 부분에서는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서, 여성노숙인은 임신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는 인공중절, 양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며, 반복된 임신과 인공중절은 여성노숙인에게 부정적인 성 인식을 심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여성노숙인의 성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보면, 거리노숙 상황에서 심각한 성 희롱, 언어적·신체적 폭력, 성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숙인은 자신의 인권과 성적 권리에 무감각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부장제 구조에서 만들어진 이중적 성 규범의 영향도 있고, 성 지식 부재의 문제이기도 하며, 누구도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회적 불신 때문이기도 하였다. 여성 노숙인은 침묵만이 거리노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노숙인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기보다 사회적 문제로 관심이 필요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적·제도적 측면에서 여성노숙인에 대한 다양한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요구하며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적으로는 차별화된 여성 전용 일일이용시설(Drop-in Center) 확

보, 단계별 일자리 제공, 부인과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사례관리 가능한 정신병원 확보, 심각한 성 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전문 성폭력상담원 배치, 여성가족부 및 여성단체의 여성노숙인의 인권문제와 성적 권리 침해에 관한 정책 마련, 교육 및 보호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실천적으로는 거리 아웃리치를 위한 여성전문상담원 보충, 다양한 거리 프로그램 개발, 경찰이나 구청 등 공공기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가족 찾기 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 여성노숙인의 인권과 성적 권리를 안전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 1. 문제제기.....1
- 2. 연구목적과 연구문제.....4

II. 이론적 배경

- 1. 여성노숙인의 이해.....7
 - 1) 노숙의 개념.....7
 - 2) 여성노숙인의 현황.....8
 - 3) 여성노숙의 원인.....11
- 2. 가부장제 구조와 문화에서의 성의 의미..... 18
 - 1) 성의 개념.....19
 - 2) 여성성.....20
 - 3) 남성성.....22
 - 4) 왜곡된 성 고정관념.....23

3. 선행연구의 고찰.....27

III. 연구방법과 연구 참여자

1. 연구방법.....27
2. 연구과정과 연구 참여자.....29

IV. 여성노숙인의 거리생활과 성 인식

1. 참여자 일반적 특성.....33
2. 사례연구 기술.....35
 1) 거리노숙의 경험.....36
 2) 여성노숙인의 성 인식.....46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62
2. 연구의 함의.....67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71

참고 문헌

ABSTRACT(영문초록)

표 목 차

<표 1> 노숙경험 여부.....	8
<표 2> 시설이용 직전 주거.....	9
<표 3> 정신건강.....	15
<표 4>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성에 대한 편견.....	22
<표 5>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32

그 림 목 차

<그림 1> 우리들의좋은집 이용자 노숙요인.....	11
<그림 2> 노숙 결정요인 및 과정.....	12

I. 서론

1. 문제제기

1997년 IMF 경제침체이후 거리로 쫓아지는 실직노숙인¹⁾들을 많은 사람들은 사회구조의 희생양으로 보고 이들을 최대한 빨리 사회로 복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여전히 노숙인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런 노숙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부정적이다(서울신문, 2005. 2. 23).

최근 몇 년 사이에 노숙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 여성 또한 거리노숙에 유입되는 상황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정에서 가사와 양육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정숙한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리를 지켜야 할 여성이 거리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되지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여성노숙인의 존재와 수적 증가의 사실은 사회적으로 쉽게 인식되지도 인정되지도 않는다.

노숙인 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숙인상담소(서울역, 영등포)의 상담자 통계를 보면, 1999년에는 남성노숙인이 95.6% 여성노숙인이 4.4%의 낮은 비율이었으나 이후 2003년, 2004년에는 각각 약 14%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임영인, 2005).

김광례(2001)는 남성 노숙의 원인이 경기불황 및 일자리 감소로 인한 실직이라면, 여성노숙의 경우는 가정해체, 정신질환의 문제가 노숙의 중요한

1) 노숙인은 통상 '노숙자'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용어이다. 이는 노숙자라는 말의 어감이 가진 대중의 부정적 선입견이나 낙인 문제를 고려한 대안적 표현으로 시작되었다.

사유라고 분석한다. 특히, 여성에게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해체와 정신질환은 거리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데도 상당한 한계를 지니게 한다. 거리노숙에 유입된 여성은 이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공황과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그들에게 가해지는 더 큰 폭력에도 더 이상 반항하지도 대응하지도 않으며, 그저 이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아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거리노숙 유입은 만성화된 남성노숙인이 많은 노숙현장에서(김진미, 2003) 여성이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의미하는지 예견하게 한다. 만성화된 남성노숙인의 생활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는 폭력, 폭언이 난무하고, 알코올중독과 각종 질병, 특히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²⁾(한국도시연구소 외, 2000)이 있는 곳이며 때로는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러한 거리에서 여성이 노숙을 한다는 것은 자존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내던져진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이 노숙을 한다면 여성의 몸, 즉 성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거리에 있으면 당연히 성 범죄에 노출이 될 것이고 남성노숙인의 성적 대상이 될 것이며 성을 이용당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은, 서정화(2005)의 최근 연구를 통해 구체적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강한, 즉 가부장적인 사고가 강한 나라에서 여성의 성은 순결해야 하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며 가정이나 학교교육 또한 이러한 성 규범을 체계화하여 왔다. 이는 순결하거나 정결하지 않은 여성(장필화, 1999)의 몸, 즉 성은 더 이상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인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노숙인의 성은 어떤 가

2) 서울역 노숙인들이 컴퓨터에 있는 노숙인들보다 3배 정도 우울증 위험도가 높고, 7.9배 정도 사람에게 대한 적대감이 있고, 4.2배 정도 공포심을 더 느끼고 있다고 함(한국도시연구소 외, 2000).

치를 부여받고 있으며, 각종 성 범죄에 민감한 사회, 여성단체들, 사회단체들이 유독 여성노숙인의 성 문제에 전혀 개입하지도 않고 침묵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분야, 즉 아동 성 범죄, 청소년 성 범죄, 일반여성 성 범죄, 노인 성 범죄에 따른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초등학생에 대한 성 폭력 및 살인사건³⁾으로 온 국민들은 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고 가해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거나 전자 팔찌를 채우거나 사형까지 거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해자의 인권문제를 주장하지만 이 사건을 지켜본 국민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내세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국민일보, 2006. 2. 24).

그러나 여성노숙인의 성 문제만큼은 사회적인 이슈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문제제기의 필요성이 있다. 서울신문(2005. 1. 24)은 거리생활을 하는 여성노숙인이 성 범죄에 노출되어 성 폭행을 당하고, 성 폭행으로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8차례나 임신을 한 10대 여성노숙인의 충격적 사례를 소개하고, 일부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이나 취객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유린당하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고, 막상 경찰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입을 다물어 버려서 수사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성노숙인이 아니고 일반적인 여성이라면, 가족이 나설 것이며, 시민단체가 나설 것이며, 여성단체가 나서서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요구하고, 끝까지 사건을 지켜 볼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성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상담과 치료를 요하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 통례이다(변혜정, 1999). 하지만 피해자인 여성노숙인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다시 거리로 돌아간다.

3) 50대 남자가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성 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하고 시체를 불태운 사건이 일어났다(서울신문, 2006. 2. 20).

사실, 여성노숙인은 주거지조차 불분명하기도 하고, 가해자 또한 주거지가 불분명한 남성노숙인이라면 더 이상 경찰의 개입을 요구하기도 힘든 면이 있는 것이 노숙의 현실이다. 더욱이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있지 않고 다시 여전히 거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 때 가해자인 남성은 피해여성에게 제 2, 제3의 성 범죄를 범할 여지가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즉 대부분의 노숙여성에게 성 폭력 위험은 그저 일상적인 문제가 되고 만다.

따라서, 거리노숙 상황에 있는 여성노숙인은 심각한 성 폭력, 즉 사회적 범죄⁴⁾에 노출되어 있음이 명백한데 많은 마스크와 언론은 하나의 가십거리로, 혹은 일회적인 기사거리로 다룰 뿐, 거리 여성노숙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성노숙인 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연구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볼 때, 사회복지측면에서 남성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지만, 여성노숙인 관련 논문은 김광례(2001)의 여성노숙인 실태에 대한 연구와 김수현(2001)의 홈리스여성 문제에 대한 연구 정도가 있을 뿐이다. 물론 이들의 연구는 여성노숙인의 현황, 개인적 특성, 노숙원인, 대책 등을 알리면서 여성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키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들은 다분히 정책적인 측면의 연구논문이며, 그것도 주로 여성노숙인 쉼터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 때문에 여성 거리노숙의 위험성, 심각성을 심층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다. 여성학적 측면에서도 여러 계층의 성 인식에 대한 논문은 많으나 성 범죄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여성노숙인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

4) 1994년 1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진 성 폭력이 결코 성 문제, 성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문제이며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1994. 1. 5. 법률 제4702호).

본 연구는 여성이 거리에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도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성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리의 여성노숙인이 자신의 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거리의 수많은 남성노숙인들에게 여성노숙인의 성이 어떤 식으로 취급받고 있는지를 여성노숙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빌어 확인하면서, 이를 사회적인 문제로 다뤄 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가부장제 구조 하에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볼 때 남녀의 권력관계로 인식된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가정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였고, 남성은 아내를 비롯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우월적인 권위와 권력을 가지는 반면, 여성은 경제적 혹은 감정적으로 종속되는 내면화된 의식을 갖게 되었다(김태현·이문숙, 2002).

1990년대 여성주의적 사상의 확산과 함께 많은 여성이 자기 주체성과 성적 권리를 찾기 시작했다. 이처럼 사회가 변하고 있고,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생기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가는데 비해, 유독 거리노숙의 여성들은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노숙인이 가부장제 구조에서 사회화된 남녀의 권력관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거리의 남성들의 권력에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여성이면서 단지 거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여성노숙인이 더 이상의 인권을 유린당해서는 안 되며, 성적 주체자로서의 성적 권리 또한 마땅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혹여 성적 권리를 침해받았다 하더라도 당당히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거리생활의 경험이 있는 여성노숙인이 자신의 성을 어떤 식으로 인지하는지, 그리고 남성노숙인들로부터 여성노숙인의 성이 어떤 식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지,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드러냄을 통해 결국은 여성노숙인의 성 문제 역시도 하나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여성노숙인이 생각하고 있는 성의 의미는 어떠한가.

둘째, 여성노숙인은 자신의 여성성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셋째, 여성노숙인의 성은 거리생활에서 안전한가.

여성노숙인의 성⁵⁾ 인식 사례연구는 거리에서 여성노숙인의 심각한 인권유린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실질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차원, 제도적 차원, 복지·여성정책 차원에서 여성노숙인의 안전한 삶과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사회적 시스템을 촉구하는데 초석이 되리라 기대한다.

5) 본 연구에서 성(Sexuality)은 성기 결합을 의미하는 개념을 넘어서 성적인 감정, 성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개인들이 갖게 되는 다양한 성적인 욕망들, 성적인 정체성 및 성적 실천을 의미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Ⅱ. 이론적 배경

1. 여성노숙인의 이해

1) 노숙인의 개념

노숙인은 집을 잃은 상태 혹은 사람들을 지칭한다. Somerville(1992)는 노숙의 문제가 주거공간의 상실(rooflessness)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안정적 기반의 상실(rootlessness)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에 의하면 주거 공간 상실은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로 추위나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기본적 욕구를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처의 기능을 말하며, 안정적 기반 상실의 의미는 집이 개개인에게 친숙한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으로서의 기능을 말하고 있다(김유경, 2000).

Watson과 Austerberry(1986)은 집에 대해, 쾌적한 물리적 조건과 기준, 정서적 및 신체적 복지(wellbeing), 좋은 사회적 관계, 통제와 사생활, 단순한 생활과 수면의 공간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노숙인의 상태는 취약한 물질적 조건, 정서적, 신체적 복지(wellbeing)의 부재, 사회적 관계, 통제와 사생활의 부재, 단순한 주거공간의 상실(Rooflessness) 상태라고 말한다(노숙인 복지회, 2000:245).

우리나라의 노숙인 지원정책에서는 노숙인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있는 사람과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을 노숙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고(서울시 보건복지국, 1998) 서울시 노숙자대책협의회는 IMF로 인한 실업자 급증과 맞물려 새롭게 등장한 사회현상으로, 주거지를 잃고, 공공장소를 배회하는 사람들을 ‘노숙인’이라고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에서 일순간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일정한 주거생활이 이어지고, 일세 방 형태의 숙소와 일시적인 노숙경험이 공유되기도 하기 때문에 거리나 지하보도 등에서 발견되는 사람만을 노숙인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서울시노숙자대책협의회, 2000). 이처럼 노숙인을 한마디로 개념화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주거의 형태가 결여된 상태로,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협의적 의미로 해석하면 집이 없어 거리나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일컫으며, 실제로 거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기 집을 가질 능력이 없어 친척이나 친구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 쉼터나 옥외 생활(노숙인복지연구회, 2000)을 하는 모든 잠재적인 노숙인들을 일컫는다.

사실, 여성노숙인은 소수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잠재적인 노숙인을 포함할 때, 일·월세를 내지 못하고 불안하게 하루하루 사는 여성, 하루 벌어 여관에서 하루 잠자리를 해결하는 여성, 적은 비용으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여성, 사우나나 찜질방, 식당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여성, 친구나 친척의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여성, 기도원이나 사찰에서 생활하는 여성, 빛과 폭력남편을 피해 쉼터에 머물러 있는 여성들은 모두 곧 노숙인이 될 처지에 있는 예비 노숙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여성노숙인의 현황

2004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0여개 쉼터에서 생활하는 여성노숙인의 수는 300여 명이며, 주요 역 주변 등 거리에서 생활하는 여성노숙인은 20-30명 정도이다. 이는 보이는 여성노숙인을 수치화 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잠정적인 노숙상태에 있는 여성들 곧 거리노숙에 위기에 처할 여성노숙인이 PC방, 사우나, 여관, 교회, 기도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김수

현, 2001).

서울지역 노숙인현황 전산DB를 구축하고 있는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1999년 말, 서울지역 쉼터에서 생활하는 전체노숙인은 4,600여명에서 2004년 말 2,975명으로 1,600여명이나 줄었으나, 여성노숙인 수는 2000년 106명(2004.1.31 현재)에서 2005년 161명(2005.1.31)으로 60%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서정화, 2005).

2005년 3월에 개소한 여성노숙인의 유일한 일일이용시설 ‘우리들의좋은 집’의 2006년 5월, 내부행정자료에 의하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이용자는 250명이며 이 중 거리노숙의 경험이 있는 여성이 56.4%, 경험이 없는 여성이 38.8%, 미확인이 4.8%로 나타났으며, 시설 이용 직전의 주거를 보면, 자기 집(전·월세포함) 30.0%, 거리노숙 30.0%, 쉼터 13.6%, 불안정주거(쪽방, 여인숙, 고시원, 찜질방 등) 7.6%, 직장숙소 4.4%, 종교시설(교회, 기도원, 절 등) 4.8%, 기타(친척집, 포이동 컨테이너, 교도소, 경찰서, 병원 등) 20%, 미확인 1.6%로 대부분이 잠재적 노숙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 노숙경험 여부

(단위 : 명 / %)

구분	인원	백분율
노숙경험 있음	141	56.4
노숙경험 없음	97	38.8
미확인	12	4.8
합계	250	100

*출처: 우리들의좋은집(2006) 「내부행정자료」

<표 2> 시설이용 직전 주거

(단위 : 명 / %)

구분	인원	백분율	비고
자기집(전월세 포함)	75	30.0	
거리노숙	75	30.0	
쉼터	34	13.6	
불안정주거	19	7.6	쪽방, 여인숙, 고시원, 찜질방 등
직장숙소	11	4.4	
종교시설	12	4.8	교회, 기도원, 절 등
기타	20	8.0	친척집, 컨테이너, 교도소, 경찰서, 병원 등
미확인	4	1.6	
합계	250	100	

*출처: 우리들의좋은집(2006) 「내부행정자료」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여성노숙인의 존재를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 물론 여성정책과 아무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어쩌면 여성노숙인의 문제를 정책화하기에, 혹은 정책실적으로 내세우기에 너무나 소수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2003년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에서 여성노숙인의 응급보호차원에서 일일 이용시설을 운영하였다. 여성노숙인의 잠자리 제공, 간단한 식사, 목욕과 세탁, 기본적인 물품제공, 쉼터이용 및 의료서비스 정보 등을 통해 여성노숙인의 작은 안전망의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곧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정부지원을 받으려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지만 소수라는 이유로 문을 닫게 되었다.⁶⁾ 당시 남성노숙인들을 위한 일일이용시설은 구세군, 햇살보금자리

6) '사단법인 노숙인복지회'에서 인수하여 여성쉼터로 전환함(2004 .4. 1). 사실상 여성을 위한 응급구호시설은 폐쇄됨.

2개의 시설이 있었고, 하루에도 100명이 넘는 이용자가 있었다. 하지만 여성노숙인의 일일이용시설은 기껏해야 10-20명 안팎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노숙인의 존재를 문제화시키고 그들을 지원하기에는 너무나 소수였던 것이다.

2005년 3월 여성노숙인 위기의식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국여성재단과 한화건설의 지원을 받아 운영공간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여성노숙인 및 노숙위기 모자가족을 위한 일일이용시설 ‘우리들의좋은집’을 개소하게 되었고 많은 여성노숙인들, 노숙 직전에 있던 많은 여성들의 안정망이 되고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우리들의좋은집’은 운영상의 문제로 그나마 여성노숙인을 위한 유일한 공간이었던 이 시설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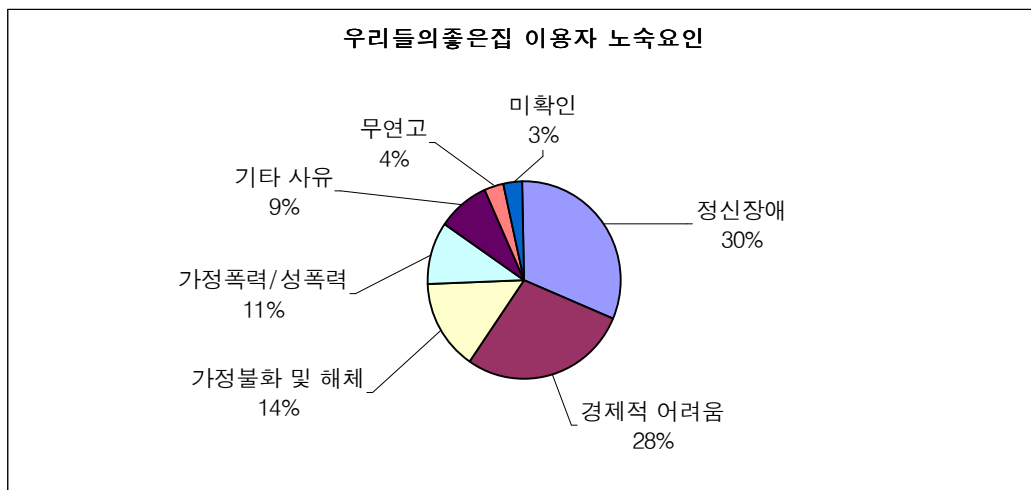
3) 여성노숙의 원인

여성의 노숙결정 요인은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다, 전자는 빈곤⁷⁾, 저렴한 주택의 부족, 열악한 경제적 조건을 들 수 있고, 후자는 실직(남편의 실직 포함), 정신질환, 신체건강문제, 사회적 관계단절 등을 들 수 있다(김광례, 2001).남성노숙인의 노숙결정요인이 경제사정 악화와 실직을 이유로 든 경우가 79.8%, 가정불화 11.5%, 건강문제 1.5%로 조사(노숙인다시서기센터, 2000)되고 있는 반면, 여성노숙인의 경우 가정폭력 등 가정해체가 30~40%, 정신장애 등 질환이 약 20%, 경제적 곤란이 4.9%를 차지하여 경제적 사유보다는 질환과 가정적 사유로 조사되었다(김수현, 2001).

여성노숙인을 위한 일일이용시설인 ‘우리들의좋은집’ 내부행정자료(2006)

7) 가족관계의 취약성은 빈곤의 결과이자 더욱 악화시키는 변수로 등장하며, 특히 근로의욕 저하나 사회 부적응 현상, 부유형 빈곤층의 발생에는 취약한 가족관계가 결정적인 변수로 나타났다(서울시정 개발연구원, 2002)

를 참조하면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정신장애 30%, 경제적 어려움 28%, 가정불화 및 해체와 가정폭력과 성 폭력 등이 25% 등으로 여성노숙인의 노숙결정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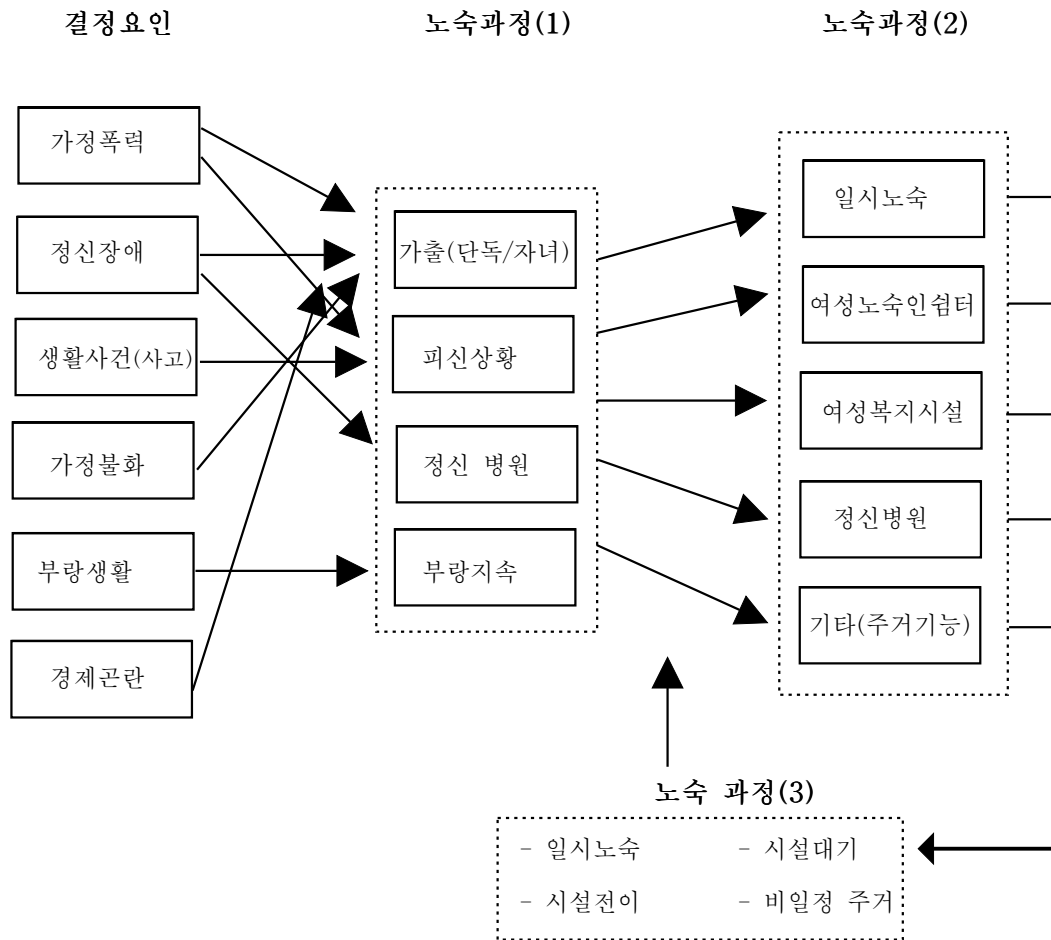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들의좋은집 이용자 노숙요인

*출처: 우리들의 좋은 집(2006) 「내부행정자료」

위의 자료에서도 여성노숙인의 정신질환 문제가 거리노숙의 큰 결정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지니고 있는 정신질환이 거리노숙 이전에 생긴 질환인지, 거리노숙의 과정에 생겨난 질환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또한 아동을 동반한 빈곤여성문제는 우리사회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상당한 가족노숙여성들은 고졸 미만으로 학력의 낮은 수준이며, 과거에 일한 적은 있지만 비정규적이거나 임시직이고, 현재는 무직인 상태가 대부분이다(노숙인복지회 역, 2002).



<그림 2> 노숙 결정요인 및 과정

*출처 : 김수현(2001). 「서울시 노숙여성 실태와 대책」에서 재인용

(1) 가정폭력과 가정해체

정태호(2000)의 「여성·가족노숙인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보면 단독 여성노숙인인 경우 가정해체, 가정폭력으로 인해 노숙인이 된 경우도 상당하다. 가정폭력은 아내학대, 남편학대,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 내에서 일

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좁은 의미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내구타와 부부강간문제, 아동학대를 들 수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폭력행사시 남편들은 “말을 듣지 않고 잘난척 한다.”, “남편 일에 참견하고 시택과 자신을 무시한다.” 등을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아내가 꼭 무엇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남성우월주의와 가부장적인 의식구조, 자라는 과정에서 폭력이 학습되어지는 것이 근본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족의 문제를 가족이라는 사적영역으로 묶어 놓고 다른 사람의 개입을 차단해 왔기 때문에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기란 어려운 문제이며, 일반적으로 여자가 맞을 짓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왜곡된 사고가 아내의 구타를 정당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근본적 원인은 가부장적 가족문화와 여성의 낮은 지위 때문이다. 즉, 남성의 권위에 여성이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가부장적 가치관으로 길들여진 문화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폭력⁸⁾이 정당화되는 것이다(한국법률상담소, 2004).

김광례(2001)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폭력,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의 경험이 있는 여성노숙인이 인터뷰 참여자 57명 중, 17명으로 전체 29.8%로 나타났고, 피해경험에 있어 29.4%가 아동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기에 부모관계의 변화와 사망을 경험한 경우가 많으며 부모의 비정상적인 양육태도 및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곧바로 가정해체의 계기가 되며, 경제적 뒷받침이나 인적자원이 전혀 없는 경우는 바로 노숙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8)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기 위하여 수많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폭력만큼 분명하고 효과적인 사회통제 수단은 없다(임정빈·정혜정, 1997 : 262-263)

(2) 정신질환

정신질환은 부적응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뜻하며, 환각이나 망상과 같은 현실 왜곡적 증상이 두드러진다.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 스스로 치료기관을 찾기보다는 보호자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치료기관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현실 판단력에 현저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직업이나 학업과 같은 사회적 적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지닌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병원이나 치료기관에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신질환에 가장 대표적인 장애가 정신분열증이며 우리사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와 낙인으로 인해 이들이 사회복귀 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원호택·권석만, 2004).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은 정신질환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제한적이며 특히, 경제력 없는 정신질환자인 경우, 사적 의료서비스와 취약한 복지체계는 적절한 치료와 재활 체계로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며, 불법수용이나 행려화되면서, 사회로의 복귀는 실패하게 된다(최윤순, 2002).

거리노숙을 하는 여성에게 있어 가장 많이 발견되고 문제시되는 것이 정신질환이다.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의 조사(2000)에 의하면 신체장애의 경우에는 남성노숙인들이 월등하지만,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노숙인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고한다.

김수현(2001)은 여성노숙인 쉼터에 입소해 있는 여성(61명)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상태⁹⁾를 조사하였다. 정신 건강이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 등을 하기

9) 정신건강상태의 제안점은 시설종사자의 판단으로 의학적 판단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정신장애에 이전 치료력이 있는 사람과 의심이 가는 사람이 포함되었으며, 집단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문의 평가에 의하지 않고는 진단하기 어려운 인격장애는 제외하였음.

에 문제가 없거나 양호한 상태가 29명(47.5%)이고, 불면과 불안 등의 신경 증적 상태나 장애가 있는 경우가 11명(18.1%),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기분 장애, 정인지체를 포함한 정신장애는 17명(27.9%), 알코올장애는 3명(4.9%)였으며, 여성노숙인 32명(52.5%)은 상태나 증상에 따라 입원치료, 정신치료, 약물치료, 사회재활치료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처럼, 여성노숙인의 정신질환문제는 심각하지만 현재까지 여성노숙인의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시설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표 3> 여성노숙인의 건강상태

(단위 : 명 / %)

양호	신경질환	정신장애	알코올장애	기타	계
29	11	17	3	1	61
47.5	18.1	27.9	4.9	1.6	100.0

*출처 : 김수현(2001) 「서울시 노숙여성 실태와 대책」에서 재인용

(3) 경제적 곤란

가부장적 사회구조는 남성 중심의 노동 시장 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여성의 노동력은 잉여 노동력으로 간주하여 주변화 시키며 가족을 기본으로 하는 임금 정책은 단신 미혼 여성, 독신 모, 여성 가장의 빈곤을 특히 가속화한다. 이러한 구조는 여성노숙인에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드러나지만 여성들 대부분이 놓여있는 현실이기도 하다(시민의 신문, 2005. 7. 28).

부분적으로 여성이 노숙으로 들어서는 것은 빈곤의 여성화¹⁰⁾를 반영한다

10) 1970년대 말 Pearce(1978)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해 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현상의 가장 핵심 원인은 노동시장의 성

(노숙인복지연구회, 2002). 많은 극빈여성들은 저학력, 제한된 취업, 여성노동의 왜곡된 인식들 등 여성이 경제력을 갖추는 데 많은 제한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아이가 있는 여성인 경우 적절한 자원과 사회적 내지는 가족적 지지 없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나마 고학력에 전문적 기술이나 자격증이 있다면 취업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이들에게는 사회적 지지망, 인간적 유대감이 충분히 형성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고 볼 때 안정된 직업을 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저학력에 사회적 지지망도 없고, 인간관계의 유대감도 없는 여성들이다. 이들이 직업을 고르는 데는 한계가 있고, 대부분이 몸을 심하게 써야만 하는 막노동에 가까운 일감밖에는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식당, 하청공장, 보험세일즈, 파출부, 용역회사의 일당잡부 등 이러한 일들은 하나같이 여성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하는 반면, 저임금과 육체적 피로를 수반하게 하는 힘든 노동¹¹⁾이다. 그뿐만 아니라 정신과 건강에 이상이라도 생긴다면 이들의 경제상황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쪽방으로, 사우나, PC방, 여인숙, 고시원 등에서 생활을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거리에 유입됨을 알 수 있다.

차별의 문제이다.

11) 이러한 노동시장의 상황은 여성의 빈곤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배제론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차원에서 빈곤문제를 보고 있다. Pierson(2001)은 ‘사회적 배제가 개인, 가족, 집단 또는 이웃들로부터 이들이 사회, 경제, 정치적 활동 전반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빼앗기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빈곤과 저소득의 결과이지만 차별, 저학력, 열악한 생활환경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그 저변에 있다고 본다.

2. 가부장제 구조와 문화에서의 성의 의미

남성 지배의 체계로 가부장제를 정의하는 Millett(1970)는 가부장제는 타 고난 권리이며, 성별귀속성¹²⁾을 바탕으로 한, 한 집단에 대한 다른 집단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이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체계라 한다. 또한 Muller(1975)는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우선적으로 남편, 아버지 또는 남자형제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이때의 보호는 남성 가족구성원과 친척에 의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이수자, 2004: 37-38). 이처럼 가부장제는 여성을 주체성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저 남성의 권력에 복종하고 그 권력에 인내와 참여를 요구할 뿐이다(이수자, 2004: 42).

아주 오래전부터 가부장제의 성 문화는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중적인 성 윤리와 성 규범을 제공한다. 결혼제도나 가족제도¹³⁾, 그리고 이를 규정하는 법제도나, 사회조직 등이 이러한 성 규범을 유지시켜 왔고, 이 성 규범의 존재는 사회구성원들의 행위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되며, 그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의 흐름을 반영하게 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종속을 가정하고 있으며, 여성에게 보다 억압적으로 작용한다(권태현, 2000).

그렇다면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고와 의식이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전해지고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여성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여성에 대한 사고가 무의식 속

12) 성별이 남성이면, 이미 권력을 얻은 것과 같다. 우리사회의 모든 정책은 주로 남성에 의해 결정되며,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여성의 일정한 행위 기준도 주로 남성에 의해 결정된다(Carole Pateman, 2001).

13) 결혼제도나 가족제도는 여성에게 모성애를 강조함으로써 헌신과 희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워 놓은 격이다.

에 이미 고정되어 있다면, 여성이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뿌리를 내리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1) 성의 개념

성은 가장 사적이면서 가장 공적이고 가장 부드럽고 예민한 부분이면서 가장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Hearn & Parkin, 1987). 인간은 성을 쾌락으로 인정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죄악으로 규정짓기도 한다. 이처럼 성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복잡하고 다양 면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성의 개념은 그 시대의 사회성, 문화성에 의해 변화해 왔고 최근들어 성을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생물학적 성(sex)의 관점으로 볼 때 생물학적 성차(성기중심)가 여성과 남성의 성차를 만들어내고 남녀의 성기구조나 생식능력의 차에 따라 남성은 적극적, 공격적, 주도적인 특성을, 여성은 수동적, 유약한 특성을 갖게 된다.

둘째, 문화적 관점, 즉 성별(gender)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녀의 정체성을 의미하며, 생물학적 성이 여성과 남성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사회적으로 여성이라는 성별을 가지면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든지 동일한 성적인 억압을 받는다고 가정하며, 여성일지라도 각각의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인종, 계급, 성적 지향, 성적인 경험 여부에 따라 사회적으로 받는 억압이 다를 수 있다고 한다.

셋째, 심리적 관점에서 성(sexuality)은 성적인 욕망들, 성적인 정체성, 성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적인 감정, 성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이시백, 2003).

사실 지금까지 지배된 성 개념은 생물학적 성으로서 성기중심으로 이해되어 왔고 이러한 개념은 여성보다는 남성 중심의 개념에 가깝다. 여성에게

성은 성교와 같은 성적 행위로 정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여성은 성적 행위를 통해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Marcuse(1982)는 인간의 성을 성기 중심으로 보는 것은 생물학적인 요소보다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산물이며, 특정한 지배를 위한 목적으로 인간의 성을 축소시킨 결과라고 한다.

성은 사회적으로 좋은성/나쁜성, 정상적인 성/비정상적인 성, 자연적인 성/일탈적인 성으로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회가 인정하는 성을 정상적이고 규범적이라고 할 때 그 이외의 성은 일탈이며 비정상적인 성으로 주변화 되고, 다양한 성적 관행을 선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적 억압이 발생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2) 여성성

우리나라는 유교¹⁴⁾를 받아들이면서 가부장제를 뿌리박고, 가부장적인 사회를 성장시키게 되었으며, 아울러 여성에게 유교적 여성관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교적 여성관의 단적인 표현이 바로 ‘삼종지도’¹⁵⁾론이다. 유교적 여성관은 오랜 세월을 흘러 다듬어지고 체계화되면서 우리 전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조선왕조 500년 동안 동양 어느 사회보다 더 철저하게 여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했다(박용옥, 2001).

Weeks(1986)는 인간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실천

14) 유교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본질화하면서 남자는 양으로, 여자는 음으로 대비시키고 음과 양의 조화를 강조하지만 양이 음을 다스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남성은 성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여성은 성적으로 지배당해야 하는 존재로 위계화한다(심영희, 1996).

15) 삼종지의(三從之義) 삼종의탁(三從依託) 삼종지덕(三從之德) - 세가지 따라야 할 도리, 옛날 여자가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을 가면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르라는 말.

들, 이를 테면 사회적 정의(definition)와 자기 정의 그리고 정의하고 규제하는 권력자들과 그에 저항하는 자들 사이의 투쟁 결과라고 하며 성이란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타협과 투쟁, 그리고 인간의 주체의 산물로 주장한다. 현재 사회에서의 여성성은 너무 오랫동안 여성 자신과는 무관하게 남성 권력에 의해 만들어져왔으며, 여성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여성성에 대해 확실성¹⁶⁾을 인정하고 적응하며 살고 있다.

Mitchell(1974)은 Freud¹⁷⁾가 여성성에서 여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분석한 것을 통해 여성의 임무는 사회를 재생산하는 것이고, 남성의 임무는 사회를 유지하고 새로운 발전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에 Wilson(1981)은 이러한 성별분업이 ‘여성성’과 ‘남성성’을 창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Irigaray(1977)는 『하나이지 않은 성』에서 여성의 성이 지금까지 가부장제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여성은 자신의 본래의 여자다움을 느낄 수 없게 되었고, 단지 남성다움의 매개변수를 통해 이론화되어 왔다고 주장한다(이수자, 2004 재인용).

가부장제에 있어 성적 주체는 남성이며 여성은 성적 대상이 되고, 피해자가 되며, 자신에 몸에 대한 성적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한다(Cameron & Frazer, 1996).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여성에게는 차별을 가져오는 것이며, 이 차별은 구조적 불평등을 양산시키고 여성이 가족이라는 울타리¹⁸⁾에서 조금만 나오려고 하면 마치 여성성을 상실한 것처럼, 혹은 여성성이 결여된 것처럼 질타를 아끼지 않는다. 여성성이 결여된 여성을 가부장제에서 남성

16) 의존성, 양보성, 희생성, 온순성 등이 오직 여성이 갖춰야 하는 성향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다움이라고 믿고 있다.

17) 프로이트는 남근이 없다는 사실이 여성 주체성 형성에 심리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여성성이란 남근을 결여한 성이라 하고 완전한 것으로부터 결여된 성, 어두운 대륙으로 개념화된 부정적 정체성이라고 한다(이수자, 2004).

18) 여성의 일차적인 위치는 가정이며, 여성이 자아실현에 성공하려면 가정에도 충실한 현모양처임을 증명해야 한다.

들은 인정하기 힘들다, 대부분 이런 여성들은 남성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남성의 지위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Virginia Valian, 1998).

3) 남성성

인류 역사의 지배적인 남녀관의 가치관은 남자와 여자는 생리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별¹⁹⁾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성품 또한 다르게 표현된다. 남성은 강건하고, 능동적, 지성적, 창조적, 모험적, 정치적, 지배적인데 반해, 여성은 유약하고 수동적이고, 비능률적, 비정치적, 피지배적인 성품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두 성의 기질은 천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남녀 간의 역할과 지위가 다른 것은 자연의 변할 수 없는 현상이며, 하늘이 정해 준 불변의 이치라고 하였다(박용옥, 2001).

Lacan의 이론에서 음경(Pennis)과 상징적인 남근(Phallus)을 연결함으로써 욕망과 성을 지배하는 가부장제적 조직이 필연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로써 남성은 자신이 남근을 가지고 있음으로 상징질서 안에서 권력과 지배의 위치에 있는 존재로 규정한다(이수자, 2004: 103).

Irigaray는 남성 성 장치와 남성 언어란 것이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서 의미를 고정시키려고 하는 남근 중심적이며 말 중심적인 것임을 주장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머리와 가슴, 지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이성과 감성과 같은 이분법적 구도들이 기본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이며,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이 가부장제 질서를 보장하고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식의 의미의 위계화는 남성의 질서에 여성의 질서가 종속되도록 한다고 본다.

19)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성은 강력하고 억누를 수 없는 성적 욕망을 가지고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반면에 여성은 성적 욕망이 없으며 수동적이고 수용적이라고 간주한다(최석 역, 2004 ; 성신여자대학교, 2002, 여성연구논총 제 3집).

남성의 질서에 여성의 질서가 종속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혼제도나 가족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강남순(2001)은 가족²⁰⁾은 끊임없이 불평등한 관계를 재생산해내는 야만적 제도이며, 육체적, 성적, 언어적 폭력 등 다양한 폭력이 자행되는 억압된 공간이며, 가족은 유일하게 안식할 수 있는 곳으로 여기는 가족신화는 오직 남성들만의 것이며, 이러한 신화는 해체되어야 할 허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4) 왜곡된 성 고정관념

Glick 과 Fiske(1999)에 따르면, 많은 고정관념이 있지만 가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고정관념이 성 고정관념이며 특히,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상당한 시간과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뿌리 깊게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브리태니커』 사전에서 고정관념을 어떤 집단 구성원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갖는 표준화된 정신 표상으로서, 고도하게 단순화된 견해, 편견적 태도 또는 무비판적인 판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조혜자, 2002).

Firestone(1972)의 『성의 변증법』은 Freud²¹⁾의 보편적인 심리적성의 구조를 통해 여자다움의 규범을 고정시킴으로써 여성억압을 이념적으로 강화시켜 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20) 한국의 가족제도는 '가족의 신성함'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위해 절대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머니를 요구하며, 끝없이 반복되는 가사노동에 여성을 묶어두고 개성과 인권을 억압하는 비인간적 공간이다(권명아, 2000).

21) Freud는 여자는 남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다른 반응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남근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Freud, 1977).

<표 4>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 · 성에 대한 편견

남성	여성
지배적이고 이기적이다	연약하며 온순하다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다	감정적이고 내향적이고 의존적이다
감정을 조절하며 안정적이다	쉽게 울고 흥분하고 걱정을 많이 한다
사회생활에 전념하며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한다	집안일을 좋아하고 아이를 돌보며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힘든 일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잘 처리한다	작은 일을 꼼꼼이 처리하며 부드럽고 섬세하다
성적으로 강하며 마음만 먹으면 성교를 할 수 있다	성적으로 약하고 성을 즐기지를 못한다
결혼 전, 결혼 후에 성관계를 가져도 용서받을 수 있다	결혼을 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한다
여러 여성과 살아도 '홍'이 아니다	일생동안 한 남자와 살아야 현모양처다
여성을 성적으로 먼저 유도함은 남성의 책임이다	여성이면 먼저 남성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교양이 없는 것이다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은 생리적 현상이다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것은 불결한 것이다
남성은 언제라도 성교를 거부할 수 있다	여성은 자신이 싫더라도 남성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야한다

* 출처 : 한국성문화연구소(2001) 「청소년 성 · 생식보건 100문 100답」

남성중심 사회에서 남성은 남성다워야 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는 가치와 고정관념이 사회과정을 습득하고, 아울러서 왜곡된 성 문화를 배워가게 된다. 사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하는 성 행동은 다르다. 남성들의 진취성은 보통 섹슈얼리티에서도 나타나지만 여성에게는 수동적인 섹슈얼리티로 인식된다. 물론 섹슈얼리티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삶 전체에서도 '수동적'

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이해되며 이것이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방식이다(Oakley, 1996).

가부장제 구조의 많은 남성들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우수하다고 믿고 있으며 여성은 지배하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일상생활의 규범과 가치를 정하는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생각한다(임정빈·정혜정, 1997). 이런 가부장적인 성 규범 이중구조나 성 역할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고정관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된 고정관념은 가부장제 구조와 문화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껏 여성들은 집안을 돌보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여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다. 가정을 잘 지키고 꾸려나가 주는 것이 힘든 노동을 하며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오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여성의 가사노동에 관련하여 여성주의 시각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강요된 것으로 보면서 여성에게 가사노동을 부과하는 한 성별 분업구조와 성 역할의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의 지위를 열등하게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사노동이 여성의 일차적 의무로 규정되고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한, 여성은 자신의 삶의 기회를 제한당하며 동시에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차별과 불이익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다(김태현·이문숙, 2002).

여성에 대한 가족폭력이나 성 폭력도 이런 성 고정관념이 왜곡된 성을 만들어낸 부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가족폭력 가해자들의 정신역동²²⁾

22) 정신역동 이론은 프로이트(Freud)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출발하여 그의 제자인 아들러(Alder)와 융(Jung), 그리고 자아의 중요성에 초점을 둔 에릭슨(Erikson)으로 연결되는 자아심리학과 설리반(Sullivan)의 대인관계 이론까지를 폭넓게 포함한다. 이러한 이론들을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이론들이 대부분 인간의 행동을 ‘정신 내의 운동과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론에 따라 주요 초점과 별리의 출발점은 서로 다르지만 대부

을 보면, 대부분 적대자(흔히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 시험행동(자신의 어떤 행동까지를 아내가 견디고 자신을 떠나지 않을 수 있을지를 테스트하는 행동), 남성성에 대한 왜곡된 표현, 여성에 대한 비인격화 등으로 생각된다. 가족폭력은 힘(power)과 지배성(control)의 문제로 집약되며, 지배성과 힘의 문제는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 경제적 지배성을 이용한 학대, 자녀들을 이용한 위협, 언어적 학대가 동반된다(이호분, 2003).

성 폭력인 경우 특히, 강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강간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잘못된 인식이다. ‘여자가 꼬리를 쳤다’ ‘그렇게 옷을 벗고 다니니’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꿰 수 있느냐’ 등의 말들은 여성에게 강간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하고 남성에게는 합리화를 시켜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이다. 강간을 한 남성에게는 오히려 본능적인 성적 충동²³⁾에서 일어나는 남자다움의 표현이라는 식으로 관대한 수용에 자세와 여성이 반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호도하는 인식 역시 여성의 책임론의 일부이며 우리 사회에 잘못된 성의식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한국성문화연구소, 2001).

이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퇴폐적이며 향락적인 성 문화, 성의 상품화, 이중적인 성 규범, 성 폭력 등은 여성들에게 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위기의식, 피해의식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정숙한 여성을 원한다. 정숙한 여성이란 성에 대해 무지해야 하고, 성욕을 아직 느껴보지 못한 순진한 여성상에서 출발한다. 사회가 이러한 규범을 여성에게 요구하는 한 여성의 성적 호기심, 성적 정체성, 성적 주체로서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자유는 누리지 못한다(장필화, 1999). 그러므로 여성은 남성이 주도하는 관계에서 수동적 존재가 되고 만

분 정신이 행동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그리고 정신과 행동이 개인의 사회 환경과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모두 정신역동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23) 남성의 본능적인 성충동이 아니라 그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고정관념일 뿐이다.

다. 이러한 관계성이 거리에도 존재하며,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들에게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 상황에서 피해자가 된다.

3. 선행연구 결과

이상에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여성노숙인이 거리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가부장제 구조와 문화가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성들이 사회적인 구조 요인과 개인적인 구조 요인으로 거리 노숙에 점점 유입되고 있고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구조 요인은 빈곤, 주택의 부족, 열악한 경제적 조건을 들 수 있고, 개인적 구조요인으로는 실직, 정신질환, 신체 건강문제, 사회적 관계단절 등을 들 수 있다(김광례, 2001).

둘째, 가족폭력에 의한 가정해체, 정신질환, 경제적 빈곤 등이 여성노숙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가부장제의 사회적 문화와 관련이 있다. 가부장제 문화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와 저급여의 일자리, 사회적 지지망의 부재가 여성이 노숙에 유입되는 역할을 한다(노숙인복지회, 2002 ; 김수현, 2001; 최윤순, 2002).

셋째, 가부장제의 사회문화에서 여성은 여성성으로, 남성은 남성성으로 성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는 여성을 남성권력에 종속시킴으로써 여성은 주체성을 잃고 억압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수자, 2004 ; Wilson, 1981 ; 권태현, 2000).

넷째, 가부장제 사회문화에서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 규범과 이중적인 성 윤리는 여성과 남성에게 왜곡된 성 고정관념을 무의식중에 심어주고 있

으며, 이러한 왜곡된 성 문화가 여성을 폭력과 성 범죄에 쉽게 노출시키며, 결국에는 여성의 삶 전체에서 희생자와 피해자로 그리고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용옥, 2001 ; Firestone, 1972 ; Oakley, 1996).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가부장제 문화에서 여성은 약자이며, 가족, 사회, 경제, 문화, 제도에서도 남성권력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가부장제 문화에서 이미 무의식적으로 사회화 되어 있는 남성노숙인들 사이에서 여성노숙인의 성 인식사례를 통해 그들의 성 인식, 여성성, 성적 권리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밝혀 봄으로써 여성노숙인이 당면하고 있는 성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내고자 한다.

Ⅲ . 연구방법 및 연구 참여자

1. 연구방법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배제되어 있는 여성노숙인의 성 인식 사례를 통해 여성이 노숙에 처해 있을 때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성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러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왜곡된 가부장제 사회문화와 맞물려 여성노숙인의 성적 권리와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음을 사회적 문제로 두각시키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노숙인의 생생한 경험을 기반으로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여성노숙인의 성성을 드러내는 일이라서 과연 피해자로서의 여성노숙인이 쉽게 자신의 성성을 드러낼 수 있는가이다.

이에 연구자는 여성노숙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과 경험을 드러내도록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한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였다. 심층면접은 질문에 대답을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가설을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아니며(Patton, 1987), 연구자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연구 참여자가 가진 경험과 맥락을 드러내는 것이며, 경험의 맥락을 드러낸다는 것은 여성이 처한 은폐된 사회적 구조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

심층면접의 핵심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참여자 자신의 현실적 상황을 자신의 언어로 드러낼 수 있게 함으로써 그동안 묻어놓았던 자신의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드러내도록 돕는 것이다(Oakley, 1981).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여성주의 연구의 시작이기도 하며, 한 사람의 개인의 영역을 넘어 거시적인 권력관계, 사회적 조직 등과 연관되어 여성에 대한 억압이 사회구조

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Smith, 1992: 89 ; 최희경, 1993 재인용).

최근 서구 여성주의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하에서 지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을 제시하고, Donna Haraway가 주장하는 ‘장소의 정치학과 인식론(politics and epistemology of location)’은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을 지식의 근거로 상정한다. 즉 모든 지식은 특수한 상황, 장소, 위치에 기초하여 나오는 상황적 지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적 지식 연구는 질적 연구 방식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성과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객관성에 더욱 근접할 수 있다는 역설을 가능하게 한다(윤태림, 2004: 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심층면접법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와 제도 안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노숙인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주관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여성노숙인의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경험의 맥락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여성노숙인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넷째, 여성노숙인의 생생한 경험과 행동의 맥락을 말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의식, 혹은 경험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Todorov(1984)은 심층면접에서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거나 알 필요가 없다는 식의 믿음은 반지성적이며, 이는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 최대한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으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2. 연구과정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노숙인의 성 인식 사례를 통해 자신의 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거리에서 남성노숙인에게 그들의 성이 어떤 식으로 취급당하고 있는지 밝힘으로써 여성노숙인의 성적 권리와 인권유린의 문제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드러내는 데 있다.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여성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노숙인들 중에 거리노숙의 경험이 있는 여성노숙인 9명과 일일이 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노숙인 2명을 선정하여 총 11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여성노숙인 대부분 보름에서 3년 정도 본 연구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서 심층면접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연구자가 쉼터의 실무자라는 상황 때문에 인터뷰 중간 중간에 반구조화된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져서 상담과 면접이 혼돈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하였다.

면접 내용이 반구조화된 면접법이라서 때로는 연구목적에서 벗어난 맥락들로 인해 이야기 줄기를 다시 돌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정신질환의 문제가 있는 참여자 중 한 두 명의 경우에는 환시, 환촉, 환청, 환후, 환미 등과 같은 정신적 증세로 인해 인터뷰를 계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인터뷰 중간 중간에 휴식시간을 갖고 환기를 시킨 뒤 이어서 인터뷰를 했다. 또한 나이 어린 참여자인 경우에 성적인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숨기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진실여부를 가리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아니므로 그러한 의도의 숨겨진 인식문제를 찾는 데 초점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시간이나 상황에 맞게 각자가 머물고 있는 방이나, 조용한 상담실에서 면접이 이루어졌고, 면접 실시 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자가 면접 내용에 대해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 녹음기를 사용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니 10명은 흔쾌히 허락 하였으나 1명은 녹음기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녹취를 하지 않았다.

처음 녹음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들은 신기해하기도 하고 재미있어하기도 하며, 녹취 이후에 자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부터 비교적 적극적면서 자유롭게 면접에 임해주었고 필요시 재면접에 응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면접시간은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50분에서 1시간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녹음된 면접 내용은 본 연구자가 직접 풀어쓰기를 하였다.

면접진행 시 연구자는 여성노숙인이 노숙을 하게 된 경위부터 노숙생활에서의 위험, 자신의 성성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유도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여성노숙인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 거리노숙의 경험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하였고 사례 기술에 있어 각각의 연구 참여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였다.

IV. 여성노숙인의 거리생활과 성 인식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모두 11명이며, 이 중 2명은 현재 거리노숙을 하고 있다(<표 5>참조).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6.5세이며 연령의 범위는 23세~52세까지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평균 교육년수는 8년 정도이며 중학교 2학년 중퇴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참여자는 5명으로 가장 많았다.

혼인상태를 보면 11명 중 4명이 이혼한 상태(사실혼 포함)이며 8명은 미혼상태다. 미혼 연구 참여자 중에 3명은 임신과 인공중절을 경험했으며 이들 중 2명은 출산과 입양의 경험이 있었다. 특히, 한 참여자는 인공중절을 5번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성병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참여자도 5명이나 있었다.

노숙경위에서는 가족불화 및 가족해체 7명, 가족폭력 2명, 경제적 어려움(실직) 2명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11명 중 7명은 정신병원 입원의 경력과 현재 정신질환의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이들은 모두 노숙 이전에 조금씩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참여자 2명은 노숙과정에서 정신질환이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정신질환 또한 노숙의 한 경로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 노숙인의 성 인식을 통해 이들의 성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밝히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데 본 연구의 참여자 11명 중 7명은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면접조건이 면접내용 상 진실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참여자 중 지속적으로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고 기본적 생활 기능이 좋은 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별하였다. 이 들 중 2명은 일일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실질적인 거리노숙인이며, 1명은 심각한 정신질환의 증세를 보였으나 이러한 증세가 면접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정점에서만 증세를 드러냈다. 정신질환이 여성노숙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거리노숙에 유입되기 전 이미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거리노숙 생활과정에서 정신질환문제가 악화되었거나 진행되었는지는 아직까지 조사된 바는 없지만 상담을 통해 추정된 결과로 정신질환의 문제가 여성노숙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여성노숙인의 성 인식을 통해 거리생활에서 일어나는 성 문제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여성노숙인의 정신질환에 관련하여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표 5>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사 례	연 령	학 력	결 혼 상 태	노숙경위		건강 상황 · 임신			
				기 간	사 유	정 신 질 환	성 병 여 부	임 신 여 부	출 산 여 부
최영미	23	중1퇴	미혼	5년	가정폭력	정신 지체	있음	없음	없음
신민진	27	중졸	미혼	2년	가정불화	우울증	있음	있음	중절1회
강미정	28	초졸	미혼	3년	가정폭력	야뇨증	있음	없음	없음 무생리
신민영	29	초6퇴	미혼	5년	가정불화 근친강간	없음	있음	있음	중절5회 입양1명
김정희	30	중졸	미혼	3년	가정해체	정신 분열	있음	있음	입양1명
이진희	38	중졸	미혼	2년	가정불화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최인영	43	고졸	이혼	1년	가정불화	정신 분열	없음	있음	자녀1명
김영란	47	중졸	이혼	3년	가정불화	정신 분열	없음	있음	자녀2명
이슬희	47	중졸	사실혼	3년	가정해체	관계 망상	없음	없음	없음
김인애	48	초중 퇴	이혼	3년	실직	정신 분열	없음	없음	없음
김구영	52	초졸	미혼	5년	실직	관계 망상	없음	없음	없음

2. 사례 연구 기술

사례기술은 각각의 사례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기술하였으며 각 사례는 여성노숙인이 처음에 노숙을 하게 된 경위, 노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 여성노숙인 자신의 성 인식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노숙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직장을 잃으면서 재취업이 어려워 실업이

되는 경우,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한 경우, 남편과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 등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거리노숙 경험을 보면, 일정한 잠자리가 없는 두려움, 배고픔, 그 무엇보다도 남성의 치근거림을 무섭고 힘들었던 과정으로 드러냈다. 여성노숙인이 가지고 있는 성 인식은 노숙을 하는 자신들에게 큰 의미가 없으며 일반적인 사회개념으로 드러낼 뿐 자신의 성적 주체성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화된 여성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여성노숙인의 거리생활을 통해 여성노숙인을 대상으로 만연하게 일어나는 성 문제의 양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1) 거리노숙의 경험

여성이 거리노숙을 시작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며 어느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음을 의미한다. 시정개발연구원의 2001년 자료 ‘서울시 노숙 여성실태와 대책’에서는 여성노숙의 결정요인을 가족불화, 정신적·정서적 문제, 가정폭력, 경제적 곤란 등으로 본다.

가정폭력으로 위급한 상태이거나 성 폭력 사례인 경우 여성 긴급 상담전화 1366에 전화를 하면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성이 거리로 나올 경우 대 피처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2002년 거리노숙인을 현장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시이용시설(Drop-In-Center)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개의 일시이용시설이 개소되었지만 이러한 시설은 남성보호시설이며 여성은 전혀 이용할 수 없다(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2003).

노숙은... 식당에서 일하다가 거기가 그 식당이 아예 없어지니까 뜯 뜯 데... 근히 있다가 밖에 나왔어요. (강미정)

강미정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나와 대부분 식당에서 먹고 자며 생활

을 했다. 특별하게 기술 있거나 노동능력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잠자리와 약간의 용돈만 되면 흥정하지 않고 일을 하였다. 하지만 번번이 식당이 문을 닫게 되고 일자리 찾기도 힘들게 되자 노숙의 길에 들어섰다. 한편으로 보면 불안정한 일자리와 임시숙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강미정은 노숙에 유입 될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직장생활을 했는데 여성으로서 딱다른 공목에서 웃음을 띠고 술을 마시고 그런 직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차량이 수천만원의 차량이 들어왔어요. 그 집으로 그대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니라 그냥 먹고 들어왔어요. 그대도 아무소리 안하고 견덕려고 했는데요. 잠을 자면요 여성들이 술을 먹고 자면 이성을 잃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는데 입하고 얼굴을 바꾸면서 입안에다 뭐 이상한 것을 먹이더라고요. 그걸 먹었는데 입을 딱 벌려요 이 뒤로 공을 빼요...그러니까 사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냥이 초상이 나면 리본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벌리고 먹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속으로 넘어갔는데 공까지 그대가지고 ...속으로 넘어가니까 뭉이 없어지더라고요. 자기 뭉이 그리고 속이 터지고 뭉이 터지고 이 자궁이 아니라 이상한 남자들 복부가 되고 아주 이집에서 천대를 하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하고 같이 일하던 여성이 벌써부터 머리통까지 사냥을 씹어버리는 거야. 그대 같고 이런데서 그런 것을 처음 겪었던 거예요. 2002년도예요. 거기서 무슨 상처가 와서 그래서 그깟두고 거리를 나왔죠. (김인애)

나 시집 잘 갔어요. 근데 남편이 뭉이 아파서 헤어졌어요. 저희 집 원체 소문난 집이래요. 한 동네만 거의 50년 산 집안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면방 선생님이시면 청탁대에서 다 알아주는 교육자였죠. 교육자만 40년을 했어. 서울 안에서 초등하고 교장만 20년 했어요... 시댁 할아버지죠.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죠. 한국에 살기만 하지 미국인이란 말이죠. 그런 게 있어요. (이슬희)

여성이 거리노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원인으로 정신질환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김인애와 이슬희의 경우는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중에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거나 가정이 해체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거리노숙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가 더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신질환자에 있어 병인식이 없는 경우 치료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느끼고 있는 모든 정신적 문제를 사실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요구한다.

엄마가 집을 나간 다음에 오빠와 동생도 다 나가 가지고 나 혼자였어요. 그냥 혼자타니까 돈도 다 떨어지니까 ... (김정희)

역세상 때 삼촌한테 처음 강간을 당했거든요. 큰 언니, 작은 언니, 나, 삼촌 4명 밖에 몰라요. 집안에 있기도 싫고 나왔어요. (신민영)

정신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5개월 정도 됐는데 집에 와서 일 년 정도 되면 또 들어가게 되더라구요. 이번에도 또 일 년이 되면 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집을 나간 버렸어요. (최인영)

아이 시업니 때문에 나온 거야. 시업니가 시집살이 시켜 가지고 나온 거라니까. 맨날 시업니랑 싸우고 그래서 나왔지. 괜히 깃궂게 평통아리를 준데니까. 사람을 막 구박을 줘. (김영란)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고 내가 충격을 받아 갖고 그때 나도 이사가 갖고 방에서 놓고 있을 때야.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자살할 생각을 했어. 내가 동생도 없고, 나도 동생 따라갈려고 자살하려고 옥상에서 막 뛰어내려 갖고 끈짜도 못해 갖고 또 거기서 불구밖에 안 된다고 오빠가 막 야단을 치는 거야. 그때 끈짜도 못해가지고 방에서 누워 가지고 방에서 오준도 싸고 그랬어. 내가 그래도 다행히 허리는 안 다쳐 가지고 한 달 정도 쉬었다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오빠가 나도 많이 없었어. 오빠가 그냥 나를 안아서 그냥 내놓더라. 그대 가지고 밖에 돌아다니게 됐어. (이진희)

여성이 노숙을 하기 시작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다. 실직이나 경제적인 문제 이전에 가족 간의 불화 즉, 가족의 가출, 근친강간, 가족이나 남매 간의 갈등은 가족해체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머물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성이 노숙을 선택하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를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이라는 체계에는 혈연관계의 존속 및 유지,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 정서적 안정 및 유대의 기능, 경제 및 소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정서적 안정 및 유대기능은 가족이 담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관계에서 볼 때 부를 중심으로 즉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이 유지되었다. 이는 가족관계에 권력이 개입되며, 이 권력은 가족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가족관계는 오늘날 가족 간의 개인주의를 형성하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아시아경제, 2006. 2. 23).

(1) 잠자리 찾기

여성이 거리에 나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잠자리 문제이다. 충분한 잠은 사람의 건강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잠자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길거리에서 자다가 동네사람들이 잔다고 웬 여자가 잔다고 경찰아저씨들이 와 가지고 파출소에 가 갖고 나면 얻어먹고 그런 적도 있었고, 동네 주차장에서 숨어서 잤어. 무서워서 거기다가 박스 깔고 자고 그랬어. (이진희)

마음속에서 남자가 와서 나를 딱 데리고 가거나 하자고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거리에서 잠 안자도 되고 하루 밤이라도 여관에서 잘 수가 있으니까요. 저기 아파트 보면 주차장에서 차 세우는 데 거기 있었어요. (최인영)

나타서 잘 데가 없잖아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교회 동생 집에 갈려구 그랬는데 일자리 구해서 잘 데도 없고 그래서 하루 일하고 그깟돈 다음에 다시 밖에는 잘 데가 없어서 명동성당에 갔는데 사람들 장례식에 참여해 가지고 거기서 먹을 것 먹고... (신현진)

추워서 이불도 있어야 되겠데. 이불도 없으니까 추워 추워. (김영란)

여성노숙인은 최대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자리 장소를 동네부근, 아파트 주차장, 성당 등을 선택하였고 이불대신 몇 장의 박스를 이용하여 잠을 청하기도 한다. 참여자 중에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것보다 차라리 어떤 남자라도 자신을 데리고만 가 준다면 하루 밤 잠자리도 괜찮다.”고 내비치며 잠자리 찾기의 고달픔을 여실히 드러냈다.

거기 종로 4가 있잖아요. 거기서 딱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눈 뜨면 소주밖에 안 먹었거든요. 빵이 숨이었어. (신현영)

누워있는데 아침에 바지에다가 누가 똥을 묻혀 놓았더라고. 여기에서 있지 마세요. 여기 앉지 마세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 (김정희)

아니요. 거기 공원이 몇 개 있거든요. 두 군데 세 군데 거기서 잤다 갔다 하면서 자요. (김인애)

여성노숙인 대부분은 잠자리를 위한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공원, 교회, 전철역 부근, 동네 인근 주차장을 찾아다니며 잠이 들었다. 때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하며, 자포자기로 아무 곳에서 자기도 했고 이러한 생활은 여성노숙인을 일상적인 성 폭력의 위협으로 빠뜨리는 중요한 상황이 되며, 밤거리에서 여성이 혼자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나 큰 고통을 동반할 수 있는 환경임에 틀림없다. 사실 잠이란 그 날의 피로를 풀어주고 다음 날의 일상생활을 대비하여 에너지를 비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불안정한 잠자리는 여성노숙인의 피로와 긴장감을 쌓이게 하며, 또한 정신적 공허감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 용돈과 성

여성노숙인에게 용돈은 적고 많은 간에 큰 가치가 있는 자원이다. 여성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 중에 생리대와 화장지가 있다. 요즘 잘 가꾸진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배치되어 있어 그나마 다행이긴 하나 생리대는 그렇지 않다. 여성노숙인은 싫든 좋든 한 달에 한 번은 생리를 치러야 하며 생리대가 필요하고, 먹고 싶은 것도 사서 먹어야 하고, 하루 밤이라도 거리에서의 잠을 면할 수도 있다.

돈이 떨어지면 구경을 했어요. 거리에서 10,000원 정도. 그것 가지고 생리대도 사고 휴지사고 빵 사먹고 그래요. (최인영)

갈 데가 없으면 그 계단에(전철역) 앉아 있었어요. 어 거기 종이 하나 깔고 있으면 갈 데가 없으니까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돈을 주더라고요. 1,000원도 주고 잔돈도 주고 그리고 많이 받았어. 그것도 꽤 많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20,000원도 벌고 그랬어요, 거리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 한 달 동안 여관에 서 잤다니까 한 오십만원 모았어, 밖에서는 추우니까 자기가 싫고 그러니까 여관에 가서 자고 그랬죠. (이진희)

돈 같은 것 안 벌어, 그냥 앉아있으면 어느 교회든지 어디서 나와서 돈을 조금씩
취 봉투호... (김영란)

구걸이나 교회의 구제비는 여성노숙인이 그나마 쉽게 돈을 쥌 수 있는 용
돈 벌이이다.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손을 벌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이들 여성노숙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을 최대한 낮
추고 구걸을 하여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한다.

지방에서도 박스 줍는 것 했어요. 딱 익은 안 해운 채머도 안 갖는데 기껏 해 바
야 하루에 3,000원 4,000 아침 6부터 12까지. 뭐 그건 거 모아지지도 않아요. 그
냥 벌어서 닻배 사서 피고 라면 끓여먹고 그러면 없더라구. (김인애)

네. 솔직히 엇그저께도 멕시코 신부님이 나를 보고 놓려가자고 해서 인제 갔는데
나하고... 배꼽 장았어요. 약간 튀기라서 아니다. 노 노 노 했더니 배꼽 장았는데
외국인이 많이 도와줘요. 거의 외국인들이, 돈도 주고. (이슬희)

여성노숙인이 거리에서 수입을 얻기 위한 방법은 그리 다양하지 않았다.
여성노숙인은 거리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을 하거나 교회에 가서 한
번 예배를 드리고 1,000원씩 구제비를 받거나, 혹은 박스나 신문지를 모아
고물상에 파는 것으로 용돈을 마련하였고 그렇게 마련한 용돈은 대부분 노
숙생활 중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 밥값도 하고, 하루 밤이라
도 편하게 자기 위해 쪽방이나 여관비로도 사용하며, 필요한 물품도 구입한
다. 이슬희는 “노숙을 하다보면 아무리 먹어도 이상하게 배가 고프고, 돌아
서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이상해요.”하며 웃어버렸다. 여성노숙인에
게는 적더라도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큰데, 이는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
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욕구이다.

그냥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낚자들 그런 데 전화해 가지고 돈이 필요하다 옛날에 그런 것이 많았잖아요. 뭐 전화해서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하루에 한번하면 5만원 받아요. (신현영)

고속터미널에 갔는데 어떤 낚자가 내가 편의점이 어디냐고 물으니 저쪽이라고 하면서 나하고 데이트나 한번하자고 하고 그래서 노래방 조그마한 데서 노래 부르고 내 옆으로 와서 내가 돈 좀 테니까 난 자기가 50이라나 그래서 여관에 갔는데... 3만원, 피인약값이 처방전 받고 2만원 3천원 주고 칠천원 낚았어요. 아 이젠 그렇게 안하려구. (김정희)

서울역에 앉아있거나 대항실에 앉아있으면 낚자들이 하자고 해요. 서울역에 있는 사냥(남성노숙인), 돌아다니는 사냥(일반인)이요, 일반 아저씨는 돈을 많이 줘요. 6~7만원 정도. 거리아저씨는 2만원... (강미정)

여성노숙인의 또 하나의 용돈벌이는 자신의 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때로는 전화방을 이용하거나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자신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용돈마련의 한 방편으로 성을 도구화한다.

(3) 거리생활에서의 폭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배움터인 ‘클레멘테 코스’ 창시자인 Earl Shorris(2006)는 가난한 사람들은 폭력의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러한 폭력은 외부로 향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며, 자기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이 더 많다고 한다. 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출구이며, Earl Shorris의 이론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여성노숙인 또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 너무 무서워. 병을 찌르고 맥 사냥을 병으로 패고. 여자는 안 그러고 남자들끼리 그대도 여자가 거기 있다가는 같이 매타작이여. 맥 때려 아무거나 맥 때리니까. 되게 무서워. 싸우는 걸 보니까 되게 무섭다고 아무나 맥 때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맥 때려. (김영란)

남자들 싸우면 피터지게 싸우는 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술 마시면 여자들 맥 겁주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맥 때려려고 해 쌓고 그런 거 맥 싹하니깐 맥 목을 해 쌓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서운 게 애는 낳고 지나가면 그깟이더라구. (신민영)

여성의 거리노숙은 정신적으로 많은 위압감을 준다.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은 남성들과 인생의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심정으로 거리의 막다른 골목에서 생을 연명하는 남성들 틈바구니 속에서 밤거리에 여성 혼자 있다는 것은 이미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김영란은 거리에서 남성노숙인이 병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는 자신에게 직접 가해진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그대로 재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큰 공포를 드러냈다. 신민영은 성적인 괴롭힘에 대해서는 “애 하나 낳으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넘어갈 정도로 남성노숙인의 폭력적인 행동에 강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냥 일 쫓 핏나구. 돈이 없어 가지고 돈 벌려구 하면 남자가 자기 자리라고 먼저라고 주먹 한번 날리고 그러 거 힘은 없어요. (김인애)

거리에서 여자들이 힘든 것은 남자들이 술 먹고 주정할 때 맥 시비거는 거. 그리고 여자들이 거리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잠자리가 제일 불편하지. 왜냐하면 남자들

이 숙 먹고 찹쩍 찹쩍거리고 때리지는 않지만 강제로 지하고 숙 한 잔 먹자는 것을 먹기 싫다는 것을 그럴 때는 욕은 해 “씨발년이 더럽게 지랄하고 빼내 그대. 먹지같이 생긴 년이 이쁘지도 않은 게 튕겨.” 이대. 상스러운 욕도 하고 그대.
(김구영)

폭력의 행위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갖은 폭력은 그 대상자를 무기력(이현숙·전춘숙, 2000)하게 만들 수 있다. 김인애는 남성노숙인들이 자신의 자리라며 “주먹 한번 날리고 그런 거 외에는”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남성의 폭력에 무감각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거리여성노숙인은 이러한 남성노숙인들의 폭력과 갖은 욕설을 경험하며 자신의 존재성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거리를 하나의 범주(가족, 학교, 직장...)로 묶어 생각해 본다면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심리적 폭력에도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 Neil & Egan(1993)은 심리적 폭력은 권력 남용이며 권력은 한사람의 능력이나 존엄, 자존감, 행복, 인간으로서의 위엄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고, 또한 심리적 폭력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일 수도 있고 고의적이거나 아닐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 있거나 내향적일 수 있고 지속적이거나 산발적일 수도 있다고 한다. 남성노숙인의 폭력성이 의식적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여성노숙인에게 신체적 폭력 못지 않게 심리적 폭력이 가해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남성에 의한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은 여성을 복종과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확실한 가부장제 문화의 산물이다.

2) 여성노숙인의 성 인식

여성에게 있어 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성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러한 성 가치관은 자신의 삶 전체에 작용하게 된다.

(1) 성 가치관

가부장제 구조에서 학교, 사회, 가정을 통한 남성중심의 반복적인 사회적 학습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한다. 그렇다면 여성노숙인에게 성이란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지 ‘성’ 하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성노숙인의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성 그러면 남자하고 자는 거요. 근데 한국이 알아둬 그거 있어요. 저는 외국인고아원에 있어서 한국 애들라 생각이 달라요. 이 한국 사람들 보면 남녀가 있으면 무조건 섹스하는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은 뭐 부터 생각하냐면 섹스를 하면 임신되면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거든요. 아이 때문에 섹스를 안 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나는 외국계 사람과 오랫동안 산 사람이라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국사람하고는 우리 댕 얘기하는데 섹스하는 줄 아는가 봐. 여인숙 같이 갔다고 섹스하는 거 아니거든 얘기해요. 얘기. (이슬희)

잘 몰라요. 아무생각 안 나요. 난 남자들하고 잠 안 자요. 한 번도 잔 적 없어요. 그리고 난 남자 싫어해요. (최영미)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다. 웬지 성을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인격에 손상이 가는 것 같고, 속물인 것 같고,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슬희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인숙에 같이 간다고 해서 섹스하는 것 아니다.”, 최영미의 경우도 “난 남자들하고 잠 안 자요.” 하며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성에 대한 방어적 느낌을 드러냈다. 한 참여자는 “남자를 모른다”, “싫어한다”는 식의 표현으로 성을 표현했지만 성병치료를 요하는 상황이었다.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서, 그냥 사랑하는 행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민진)

섹스, 섹스 여자, 남자 옷 벗고 하는 거. (이진희)

신민진과 이진희의 경우에는 성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는 행위”, “섹스”라고 답하였다. 성 문화가 개방되고 성이 다양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성기중심) 성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성 가치관은 여성노숙인에게 성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보다는 소극적,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게 할 수 있다.

흥분, 돈, 그런 성 생활을 하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배우자도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말로는 사랑, 서로 사랑하니까 하잖아요. 나쁜 느낌은 병 걸리는 거, 에이즈 걸리는 거, 원치 않는 임신이 되는 거. (최인영)

그냥 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걸 할 텐데 ... 그냥 부부들 결혼을 하면 그걸 할 거다 생각해요. (김정희)

최인영과 김정희의 경우에는 성은 조건과 안전한 관계에서의 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의 가치관은 사회가 인정하는 성만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이외의 성은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다양한 관계에서 형성

되는 성의 존재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성의 개념은 가부장제 구조에서 여성에게 스스로 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되기도 한다.

(2) 성 욕구

성 욕구는 가부장제 구조에서 남성들의 소유물로 여겨져 왔다. 남성은 억제할 수 없는 성 욕구의 소유자로 사회는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사회문화 곳곳에 성 욕구의 해소를 위한 장치를 해 두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성 욕구는 가부장제 문화에서 무성이거나 약한 존재로 철저하게 억압당했다.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남자들이 막하면 그런 나도 어떤 때는 막 하고 싶어요(남자들이 사정하듯이 사정하고 싶다고 함). 남자들이 막 하고 싸잡아요. (신민영)

에버랜드에 놀러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머리에서 막 머리가 이상해. 성욕이 있는 건지, 그런 게 있더라구요. 가슴을 막져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가슴에서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땐 가슴을 막져보죠. 자위도 누가 가르쳐 준 것은 아니지만 책을 보고 크리스토퍼를 자극하면 된다 그런 걸 봤어요. 그걸 한 번 해봤는데 재미도 너무 재미도 모르겠어요. (김정희)

이제는 일을 하니까 없어요. 없는데 놀면은 가끔가다 생각이 나도 나고 그러지. 옛날에 남자랑 잠도 자 보고 해 봤는데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이지.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내. 다른 데로 신경을 다른 데로 쓰지. 그 쪽으로 집착하면 안돼요. 머리가 이상해져. (이진희)

성욕 그런 거 하고 싶다 아무 생각 없어요. 먹고살기 빠듯한데 먹여주는 것도 감사한데 성 생각을 해요. 주제파악을 해야지. (이승희)

성욕, 성충동 이러한 용어들은 여성에게보다는 남성에게 잘 어울리는 말, 사용 가능한 말인 것 같다. 사람이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것처럼 성 욕구 또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다. 여성노숙인은 몸이 몹시 피곤할 때, 일을 하다가 놀고 있을 때 성 욕구가 생긴다고 대답하였고, 성 욕구의 해소방법으로 욕구를 참거나, 생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자위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 신민영의 경우는 주로 남성에게 들을 수 있는 강렬한 표현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신있게 표현하였다. 하지만, 일부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드러내면서도 스스로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처지, 집착, 이상해져, 재미없어”라는 말로 자신의 성 욕구를 감추고 자 하였다.

(3) 여성성

가부장제 문화에서 여성성은 남성에게 보호받기에 마땅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가정, 학교, 사회, 문화를 통해 여성은 여자답게 키워지고 여자답게 자라고 여자답게 완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순결과 임신 두 가지를 여성성의 기준으로 삼았다.

① 순결

여성과 남성에게 동시에 적용되어야 할 순결은 여성에게는 문화적으로, 규범적으로 큰 의미로 강조되지만, 남성에게 순결(동정)은 문화적으로 규범적으로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순결을 지켜야 되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순결(동정)을 지키는 일은 때론 그들의 세계에서 소외당하기도 한다.

순결이라는 것은 지켜지면, 한 남자에게 끝까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 그리고 남편이 다른 데로 헛도하지 않고 그 여자를 헌신적으로 돌봐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온한 거고 순결이 안됐을 때는 그 남자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부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뭣사지를 열심히, 피부미용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남자한테 매너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남자가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고 그 남자가 좋아하는 일은 뭘까 그렇게 끊임없이. 아무튼 순결하지 않은 여자보다 피곤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피곤한 삶이에요. (최인영)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아유 그거 너무 심하니까 너도나도 하니까 지키는 게 나은 것 같아. 자신을 위해서. (김구영)

지키려면 지킬 수 있지만 쥘 상황에 따라서 그걸 순결을 그냥 그런 것도 없었어요. 순결에 대해 꼭 지켜야 된다는... (신민진)

40대 중반의 최인영과 김영란의 경우는 순결은 여성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잣대가 된다. 특히 최인영의 경우처럼 “순결하지 않는 여성은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식에 그녀의 말은 가부장제 구조에서 욕구하는 순결이 데올로기에 학습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최인영은 평소에도 가슴이 작은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이혼하게 된 것도 자신의 가슴이 작아서 버림받은 것이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20대 후반의 신민진의 경우는 순결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16세에 가출을 할 당시 갈 곳이 없고 배가 고파서 역전 앞에 앉아있을 때 한 아저씨가 자신을 데리고 여관에 갔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들 중에는 순결이데올로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가슴 깊이 순결을 지키지 못한 잠재된 죄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임신

여성에게 엄마가 되는 것은 가부장제 구조에서 여성인생의 완성으로 본다. 또한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성의 개념이며, 여성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여성에게 정절, 순결을 요구함은 바로 여성의 생식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 이렇게 사니까 계속 누가 장아 죽 사잖도 없고 옆에서 저는 막 떠돌아다니다 계속 있잖아. 몇 번 애를 뗐거든요. 솔직히 다섯 번 태요 ... 또 했는데 난 배가 계속 부르길래. 난 그냥 살이 찌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노숙자 중에 아는 아줌마가 “야! 뱀 뱀아 걷는 모습이 임신한 것 같아.” 하며 “여기 앉아봐라.” 하며 임신 안 했냐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병원 가니까 이미 늦었지 ... 내가 안 본다고 했거든 보면 눈물나고 낄자요. 내가 한국인 말고 외국인에게 입양시켜 달라고 했거든요. 사회 그런 데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외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신현영)

임신한 걸 몰랐죠. 임신을 안 해 뱀 가지고 임신이 된 줄 몰랐죠. 임신인 줄도 모르고 누가 신고해서 수서여성복지관에 갔는데 거기서 청량리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약을 먹고 애를 낳기 때문에 애가 비정상이면 어떻게 하나 그게 하나 걸렸어요... 어디로 가버렸나 뱀요. 가나 뱀요. 입양동의서에 지장 찍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그랬더니 그게 끝이에요. 쓸데없이 재미도 없는 거 해 가지고 괜히 애를 낳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북쌍하다라는 생각만 하죠. (김정희)

여성노숙인은 거리생활 중에 성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가 있고 임신, 출산,

입양의 경험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임신은 축복이며 행복으로 생각되지
만 여성노숙인의 임신은 또 하나의 상처로 남는다. 첫째, 아이 아빠가 누군
지 모르고, 알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혼자 임신에 대한 모
든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둘째,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낙태를 시켜야 하거나 입양기관에 의뢰하므로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요구하
는 모성애(아이를 낳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실추하게 된다.

(4) 성 폭력

우리사회에서 성 폭력의 개념은 두 가지 범주로 생각할 수 있다. 넓은 의
미의 성 폭력 개념은 강간, 성 추행을 포함한 성적인 폭력과 아내구타, 매매
춘, 인신매매 등의 여성에 대한 폭력, 심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까지 포함하
며, 좁은 의미의 성 폭력 개념은 성적인(sexual) 폭력의 의미를 강조하고 개
인의 성적인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
해에 근거하여 강간을 비롯한 성 추행, 성 희롱 등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쾌감, 공포, 두려움까지를 말한다(변혜정, 1999). 여기
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성 폭력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여성노숙인 대부분이 거리노숙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남성들의
폭력이다. 남성노숙인들끼리야 치고 받고 싸우는 간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여성노숙인 자신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폭력 등은 여성의 거리노숙 중에서
자신의 존재성에 위협일 수밖에 없다. 특히 폭력의 한 형태로서 성 폭력은
여성노숙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이면서 거리노숙의 비참함을 여실히 드
러내고 있다.

남자들이 썩뿌땡 대지, 이부자리도 싸 가지고 았다 갔다 해야지 불편해. (김영
냥)

여자들 혼자 짚려고 댕 데 가서 자잡아유. 그런데 남자들이 귀신같이 알고 오더 나구유. 타 가지고 의례 자기 여자처럼 이복속에 들어타 짚려구 하고 ... (김인애)

여자들이 거리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잠자리가 제일 불편하지, 왜냐하면 남자들이 술 먹고 짹짹 짹짹거리고, 사람을 이렇게 문을 건덕려구. 그리고 상스러운 욕도 하지. 술도 같이 먹자고 하지. 또 지 댕에 듣게끔 하면 욕도 안하고 두들겨 패지도 않지. 지 댕 짹 들으면 이 여자하고 어떻게 해서나도 성관계를 한 번 해볼까, 그전 재머지. (김구영)

여성노숙인은 거리에 노출되는 그 순간부터 남성노숙인들의 표적이 되어 성적 괴롭힘을 당한다. 가까이하려는 남성노숙인들을 피해 잠자리를 이리저리 옮겨야 하고, 지치고 피곤한 육신도 모자라서 자신을 성적 대상화하는 남성노숙인의 갖은 욕설과 폭력을 감내해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적 괴롭힘은 여성노숙인이 거리에서 늘 긴장해야 하며 남성노숙인과의 불화 요소로 나타난다.

그렇지 그대 매일 싸우는 거예유. 그것 때문에. 그러고 지 여자처럼 딱 그러고 뭐 살던 여자처럼. (김인애)

싫다고 달려들지 왜 그러냐고... (김구영)

딱 쌀쌀맞게. 그러면 딱 때려려구. 그대 딱 때려려구. 그래서 딱 강제로 데리고 갈려구 그대. (김영강)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을 방어하기 위해 악다구니도 써 보고 아예 몸을 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하지만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갈 때가 없으니까 맨 걸어다니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안양에 걸어가 가지고 전철에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어떤 남자가 날 똥 가슴을 뒤에서 이렇게 째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대 딱 때리니까 그 새끼가 날 때리는 거야. 여기(코 부분) 딱 때리는 거야, 코피가 얼마나 흘렀는데. 여기흠 딱 때려갖고 코피흠 한 덩어리흠 흘렸어. (이진희)

전철역에 앉아있는데 밤 12시가 넘으면 남자들이 이제는 1시 정도 되면 왔다 갔다 하더라구. 남자들이 나한테 저쪽 끝에서 저쪽 먼데서 바지를 쓱 벗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막 그냥 가는 거야, 한번은 성 희롱도 당했어. 남자가 내가 전철에서 자는데 날 데리고 여관에서 잘려고 리를 쓰는거야. 째시키면서 어찌고 저찌고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야 돈 준데... 안 간다고 하니까 옷을 입은 채로 여기(생식기 부분을 손으로 째 째는 흉내를 냈) 째지는 거야. (이진희)

그냥 뭐 사주고 오징어, 뭐 사주고 숙 데리고 가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사주거나 했지. 어떤 사람은 사주지도 않고 ... 그게 멍청해서 근데요. 그때 돈을 주지 않음까 돈을 주니까 처음에는 안 할려구 하는데 뺨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뺨이냐도 얼어먹을까. (김정희)

그런 거예요. 남자니까 여자가 길거리에 그냥 있으면 한 번 심땀가리를 하죠. 그것도 여잔데... 가볍죠, 당연하죠. (김인애)

이진희의 경우는 자신을 성 추행하려는 사람을 방어하다가 크게 맞아서 고생을 했다며 그 때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고 한다. 김정희는 자신이 성폭행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저 자신이 멍청해서라고 합리화시켰다. 김인애의 경우는 여성이 거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남성들의 성적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이보다 더한 것도 겪

으면서 여성노숙인이 살아간다면 더 심각한 사례도 들었다.

돌림빵 치기 침대 일흔 딱 당하고 그래요. 갇금되면... 조직으로 막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침대 일까지 가요. (김인애)

돌림빵이지. 응 돌림빵이야... 한 여자를 두고 여러 명이 하는 거... 남자 세 명을 여자가 못 당하지. 남자가 딱 잡고 한 명은 하는 거여 그게 돌림빵이여. 한 명이 하고 나면 너가 해. 그러면 세 명이 다 하는 거지. 세 명이 다 하면 돌림빵이지 돌아가면서 하는 게. 그 여자는 기진맥진이지. (김구영)

어떤 때는 그냥 끌고 가요. 처음에는 저쪽으로 가더니. 너 여기 있어. 그러면 안가고 서있고. 명청해. 머리가 안 돌아가. 또 이쪽으로 오면 자기들끼리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고 아까 빵 준 사람이 저쪽으로 데리고 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김정희)

돌림빵(집단강간, 윤간)을 당한 여성노숙인은 자신이 있던 구역을 떠나 다른 구역으로 옮겨서 계속 거리노숙을 하기도 하고, 다른 노숙인들 사이에 가십거리가 되기도 한다. 돌림빵을 당한 여성노숙인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역에서 떠나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구역으로 옮겨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막약에 응지로나 종로바닥에서 당했다. 그러면 종로바닥에 그 여자가 안 나타나지 다는데 가지. 뭐 영등포나 모각 쪽이나. (김구영)

저 여자 누구다, 누구다 이런 거 된 빵 앞잡아요. (김인애)

거리에서 남성노숙인의 여성노숙인에 대한 성적 괴롭힘, 성적 학대가 제

한적이든지 폭넓게든지 비밀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만 있는지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고해도 아이, 경찰이 그런 데까지 신경쓰지 않을 것 같아... 청양리에서 딸애가 상점에서 순경을 잃었다면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 돈을 받으라고 했다고 그 딸 한마디 하더래요. 돈을 받으라고 아유... 첫 경현을 했을 때도 나는 신고해봤자 아무소용 없을 거라는 생각이 그때도 들더라구요. (김정희)

아니요. 제 성격에는 아, 저는 신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싫어서 내 행동에 쫓겨 이럴게... 내가 피해자라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도망치고 싶지. 신고 같은 것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신민진)

그냥 ... 참고 생각 안했어요. (최영미)

아니... 땀피해 갖고 신고하고 싶지 않아요. 억당은 신고하고 싶지 않아요. 애가 안 생겼으면 그냥 나 혼자 삭이고 딸 것 같어요. (최인영)

여성노숙인은 성 폭력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보호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 의식적인 것도 있지만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무의식적인 사고가 공적도움을 회피했다.

어느 늙인지 신고하면 그 늙이 있나. 못 잡지. 오늘 그 여자가 신고했다 그럼 오늘 그 여자가 있나 당하고 나면 거기에 있지 않을까. (김구영)

신고해도 마찰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수십 번 교도소에 갔다오니까 아무것도 안

태. (신민영)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지. 어떻게 생긴 놈이 어떤 놈이 나름 이렇게 가슴을 찔렀다고 성희롱을 했다고 그리고 낄 때리고 도망을 했다고 장아달라고 그런데 잡지 못했어. 그때 내가 괜히 경찰서에서 나왔어.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잖아... 신고를 해도 해결을 못하면은 뭐야 자기 자신한테 손해보잖아. (이진희)

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당하고 그냥 법에 호소가 안 되면 억울해도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살아야지. (김인애)

일정한 주소지가 없는 여성노숙인이 일정한 주소지가 없는 남성노숙인을 상대로 피해 신고를 한다는 것은 조사의 한계를 가져온다. 신고를 하면 여러 번 진술을 하러 가야 하고 일정한 주거지 없는 남성을 찾아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노숙이라는 상황을 이유로 어느 정도의 죄질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려는 공적기관의 안일함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공적기관의 안일한 태도는 여성노숙인이 공적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게 한다.

보호해주는 남자가 있어... 남자가 있는 애는 못 끌고가니까.. 나한테 시비걸면 태 그러나 그렇게 시비거는 것은 없었어. 꼭 술 먹은 사람들이 그러면 난 피해 버려. 가. 있지를 않아. 그냥 딱 목하고 그대. 그러면 슬그머니 가 버려... 행동을 잘해야 돼. 거리 여자들처럼 아무나 하지 말아야지 히히낙낙거리지 말아야지 남자들 “술 한잔해 야, 먹자.” 그런 취하면 우리 여관에서 자자 그대 그러면 안돼. 술이 취했기 때문에 그런 데 말려들면 안돼... 김00도 그대, 백00타 단짝이니까 저렇게 붙어 다니면 함부로 못 그러지, 똑같이 다니니... (김구영)

여자가 뺨중에 거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 나도 그걸 몰랐어. 남자

는 괜찮지만은 한밤중에 길거리에 있으면 딱 알겠어... 경찰서로 가야 돼... 그때는 내가 넋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경찰서 가더라도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그런 말이 없더라구. (이진희)

여성노숙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자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짝을 지어 다니기도 하며 거리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었다. 김구영의 경우 아무리 노숙이지만 여자가 행동만 똑바로 하고 처세만 좋으면 남성노숙인들에게 당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태도 또한 성 폭력 문제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 돌리려는 사회적인 학습화에서 사고된 태도라 할 수 있다. 이진희의 경우는 자신이 노숙을 하면서 시설정보가 없어 거리노숙을 오랫동안 한 것에 대해 많이 속상해하면서, 왜 경찰은 자신이 거리노숙을 할 때 아무런 시설 정보를 주지 않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결론적으로 볼 때 여성노숙인이 거리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스스로 처세를 잘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지 안전망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성 폭력과 같은 문제는 가부장제적인 사회구조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남녀 불평등한 성 차별적인 구조, 남성 중심적인 성 문화, 상품화되고 퇴폐적인 성 문화, 성 교육의 부재, 사법처리 과정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되게 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성을 무가치하게 만들며,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성에 대한 정당성을 잃게 한다. 특히 성 교육의 부재는 올바른 성 지식의 정보 부재를 의미하며 왜곡된 성 문화를 그대로 답습케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5) 성 지식

최근 들어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성적인 인간임을 인정하면서 다양한 성 지식들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 지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성 지식은 여성에게나 남성 모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성을 느끼게 하며 특히, 여성에게는 그동안에 통제되었던 성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몸에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그에 따른 결정권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율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왜곡된 성 지식은 자칫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성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자신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으로 인정해 버린다. 올바른 성 지식은 자신의 성에 대해 건강하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남자들은 성욕을 그... 여자는 참을 수 있는데 여자는 참을 수 있는데 남자는 그런 거 강제로 할 수 있잖아. (김구영)

저기 뭐지 남자들이 딱 리듬히고 저거 그런 거 어떡해... 저기 뭐야 딱 찌부덕거리는 거. 또 딱 여인숙 가자고 그러는 거. 여관 가자고 그러는 거. (김영란)

뭐 임신하거나 병 걸리고 그리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인영)

영 몰랐어. 임신을 여러 번 했는데 또 임신을 할 거다 이런 생각 없었어. 계속 배여(임신하면 떼면 된다) 있는 거야. (신현영)

남자가 가르쳐 줘서... 남자가 가르쳐 주더라구요 피임약을 먹으라고... 그대, 성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대 거기가 가려울 때가 있더라구요. (김정희)

그거(콘돔) 끼고 했으면 좋겠어요. 성병에 걸리지 않게. (강미정)

남자노숙인의 성 희롱 및 성 폭력에 대한 대처, 임신과 피임, 성병은 여성노숙인에게 중요한 관심사다. 연합뉴스(2006. 4. 13)에 의하면, 한 여성노숙인이 임신인 줄도 모른 채 길거리에서 급작스럽게 자연분만을 하고 태아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자신이 임신한 줄도 몰랐다가 일어난 이 사건은 노숙에 처한 여성의 성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노숙인들의 성 지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다’는 식의 왜곡된 성 지식을 갖고 있기도 했고, 남성의 성 희롱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무지했으며, 어떤 상황에서 임신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여성노숙인의 성 지식의 부재 내지는 왜곡된 성 인식은 거리생활에서 자신의 성적인 문제에 소극적이 되며, 여성들 스스로 남성들의 성욕을 어떤 상황에서도 억제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욕구로 인정해 버리고 자신의 성적 자율권을 포기한다.

V. 결 론

1997년 IMF이후 대량실업과 맞물려 사회문제의 한 현상으로 노숙인 혹은 실직노숙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나는 노숙인 중에는 여성노숙인도 자리잡고 있고 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노숙인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가부장제 구조와 문화로 인한 왜곡된 성 인식 때문에 남성노숙인보다 이중 삼중의 힘들고 어려운 거리생활을 지탱하고 있다. 여성에게 거리란 자신의 삶의 끝자락으로 선택한 장소이므로 그 자체가 두려움, 공포라 할 수 있겠다.

더욱이, 거리생활에서 여성노숙인은 자신의 성적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침해받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저 무력하게 모든 상황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지 거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 보호받아야 할 성이 보호받지 못한 성으로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거리의 여성노숙인이 자신의 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남성노숙인들로부터 여성노숙인의 성이 어떤 식으로 취급을 받는지 다루어 보고 이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여성노숙인이 생각하고 있는 성의 의미는 어떠한가, 둘째, 여성노숙인은 자신의 여성성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셋째, 여성노숙인의 성은 거리생활에서 안전한가 등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노숙인이 거리생활에서 심각한 인권유린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사실을 여성노숙인의 목소리를 빌어 드러내고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밝히고자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사례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여성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노숙인 중에 실질적인 거리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 9명과 일일이용시설을 이용하는 2명으로 총 11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별하였다.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여성노숙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빌어 거리생활에서 여성노숙인의 성 인식과 심각한 성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밝히는 데 있어 여성노숙인이 거리로 나오게 된 경위와 원인, 거리생활상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여성노숙인이 인지하고 있는 성 인식을 통해 거리에서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는 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거리노숙의 경험

여성에게 있어 거리노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방편이다. 여성이 거리를 선택한 중요한 요인으로써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 간의 갈등 및 불화는 여성의 거리노숙 유입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가족은 인간에게 안정과 평화와 안식을 주는 곳이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충전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런 공간을 잃었을 때 선택할 곳이 바로 거리가 되어 버린 여성노숙인은 막상 거리에 나와서도 마땅히 잘 곳도 쉴 곳도 찾을 수 없으며 또 한번 소외되는 외로움과 추위와 배고픔을 겪어야 한다.

거리에서 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종이
줍기, 거리구걸, 교회 꼬지 등의 용돈벌이는 몇 천원에서 몇 만원에 불과하
지만 이러한 얼마 안 되는 용돈은 그나마 여성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자원이 된다. 또한 용돈벌이의 한 방편으로 자신의 성을 상품화하는 여성노
숙인도 있었다.

거리노숙에 있어서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남성노숙인들의 무차별
적인 폭력이다. 특히, 술에 취해서 물, 불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폭력성에
여성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심한 욕설 앞에서도 한마디 못하고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여성을 수
동적으로, 주체의식 따위는 감히 생각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몰고가며 여성
은 자발적인 무력감으로 모든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게 된다. 최후의 수단
으로 선택한 여성의 거리노숙에서 여성은 자발적으로 폭력에 순응해야 하며
적응하지 않으면 도저히 자신의 존재성을 기약할 수 없다.

2) 여성노숙인의 성 인식

가부장제 구조와 문화에서 여성의 성은 그 존재 자체를 무시당하거나 억
압당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성은 순결해야 하고, 정숙해야 하며, 가족
안에 머물러 있어야 안전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 가족폭력과 가족해체, 경제적 빈곤, 정신질환 등의 이유
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노숙생활을 선택한 여성
들, 여성노숙인의 성은 과연 보호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성노
숙인의 성 인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1) 성 가치관 : 성기중심 성과 억제된 성

성이란 단지 여성과 남성의 성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은 육체적인 본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기도 하며, 성에 대한 태도, 가치관, 임신, 출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노숙인은 성이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옷을 벗고 하는 행위, 정상적 부부생활에서만 가능한 성기중심의 행위와 같은 좁은 의미로 표현하였고 이러한 성 가치관은 여성에게 소극적, 수동적인 성 역할과 이중적 성 규범으로 인한 억제된 성을 유지하게 한다.

가부장제 구조와 문화에서 성이 남성의 영역인 것처럼 여성에게나 남성에게 사회화시키고 내면화되면서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남성은 성욕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관대하다. 반대로 여성에게는 성욕에 대해 무성이기를 원하고 설령, 성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관습이나 윤리, 도덕성을 내세워 억압하거나 자연스럽게 통제한다. 이러한 영향은 여성노숙인도 마찬가지다. 성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 여성노숙인은 “자위행위에 별 재미를 모르겠다, 그것에 집착하면 머리가 이상해진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 노숙인 주제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는 식으로 성 욕구를 차단해 버리는 단면도 엿볼 수 있었다.

(2) 여성성 : 순결과 임신

가부장제 구조와 사회에서 여성성을 표현하자면 순결, 정조, 순종, 여성다운 모습, 모성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순결의 개념을 보자면 여성과 남성이 결혼 전까지 성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의미를 둔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대체로 여성에게 적용되는 의미이다. 물론 남성에게도 동정과 같은 순결의 의미가 있지만 남성에게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

의 입장은 다르다. 순결은 여성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덕목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왔다. 그러므로 여성은 당연히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혹여 상관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마음 깊숙한 곳에 죄의식으로 남아 있게 된다. 여성노숙인 또한 순결에 대해서만큼은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소중히 지키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나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순결의 가치를 여성의 삶과 동일시하였다.

여성의 가장 여성다운 모습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여성노숙인에게 임신은 선택의 폭이 좁다. 임신은 곧 인공중절로 이어지게 되고, 설령 분만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입양기관에 넘겨지게 된다. 거리에서 반복된 임신의 경험이 있는 한 인터뷰 참여자는 임신하면 아이는 떼면 된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태도까지 보였다.

(3) 성 안전성 : 성 폭력의 공포

성을 매개로 하는 인권유린과 폭력을 성 폭력이라고 한다. 가부장제 구조는 남녀불평등한 성 차별적 사회구조를 창출하였고, 남성중심의 성 문화를 여성에게 적용시킨다. 힘이 있는 남성이 힘을 갖지 못한 여성에게 성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남성중심의 성 문화로 볼 때, 단지 주체할 수 없는 성욕 때문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다.

거리생활을 하는 여성노숙인은 생물학적 특성(성기중심으로 볼 때) 때문에 잠자는 것, 먹는 것, 성적인 것들이 거리의 여성에게는 지옥과 다름없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눈이나 붙여볼까 하여 공간을 찾아 누워 보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남자들이 치근덕거리는 바람에 그들을 피해 여기 저기 옮겨가며 생활을 한다. 거리생활에서 여성노숙인 대부분은 심각한 성희롱과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성

노숙인은 침묵한다. 어쩌면 거리에서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신의 결과이기도 하고, 한 연구 참여자가 거리에 있으면 당연히 당하는 것이라며 별일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렸던 것처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해 버린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가부장제 구조와 문화가 여성과 남성에게 왜곡된 성 인식을 심어 준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노숙인의 성 지식의 부재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례자 중에는 임신, 피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서 몇 번의 인공중절과 분만, 입양 등을 반복하였고, 성병의 위험성, 성 희롱, 성 폭력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거리생활에 있어 여성노숙인은 가부장제 구조에서의 왜곡된 성 문화, 성 인식과 성 지식의 부재, 불신으로 인해 자신의 인권문제나 성적 권리에 무감각하고 소극적인 태도(Cameron & Frazer, 1987)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숙인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인정하고 복지적·제도적 측면에서 여성노숙인에 대한 다양한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2.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첫째, 본 연구는 여성주의 시각으로 여성노숙인의 문제를 다루었다. 여성노숙인과 관련된 연구가 희박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본 연구는 앞으로 여성노숙인에 대한 폭 넓은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여성노숙인의 거리생활 상을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밝히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여성노숙인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의 연구들뿐이었지만, 여성노숙인의 실제 거리생활 상을 현실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거리생활을 하는 여성노숙인의 성 인식을 통해 심각한 성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제까지 연구들은 유아, 청소년, 미혼여성, 기혼여성, 노인여성, 장애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여성 계층의 성 인식과 성 문제를 다룬 연구들이었다. 그러므로 여성노숙인의 성 인식과 성 문제에 새롭게 접근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가부장제 구조와 문화가 남녀불평등한 성 차별 문화를 창출하였고 이러한 구조가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문화, 사회, 정치, 경제에서 주체성 있는 여성의 삶을 억압하거나 통제하였으며 자발적 순응에 동조하게 만들었다는 기존 선행연구를 지지하며 여성노숙인의 문제, 즉 노숙경위, 성 인식, 성 회롱,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 폭력 등이 가부장제 구조와 무관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적 함의

첫째, 차별화된 여성 전용 일일이용시설(Drop-in Center)을 확보해야 된다. 서울지역에 정부지원을 받는 남성노숙인의 일일이용시설은 햇살보금자리, 용달샘, 구세군 드롭인 센터,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4곳이 있으며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성 전용 일일이용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지난 2005년 3월 여성재단과 한화건설의 후원으로 여성 전용 일일이용시설 ‘우리들의좋은집’이 개소를 하였지만 정부지원을 100%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상의 문제로 밤 시간대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다. 차후 정부지원이 100% 지원되지 않는다면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여성노숙인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비장애인, 정신장애인, 미혼모, 모자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노인은 대우 받고 싶어 하고, 비정신장애인은 질환이 있는 여성에 대한 지식이 없어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다보니 정신장애인과 잦은 다툼을 일으키고 퇴소당하는 결과의 사례도 많다. 시설의 이런 환경은 그저 편히 쉬고 싶어서 찾아온 이용자에게 시설에 대한 불신으로 남게 되고 다시 거리를 배외하게 하는 역기능을 한다. 모자가정의 아이들 또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물론 모가 노동능력이 있고, 정신건강이 양호하다면 모자시설에 연계하기는 쉽다. 문제는 정신질환이 있는 모일 경우, 이들을 받아 줄 모자시설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 연계 할 시설이 없어 머물고 있는 아이와의 마찰은 심각할 정도이다. 따라서 차별화된 여성전용 일일이용시설의 확충은 시설을 이용하는 여성노숙인의 질 좋은 서비스와 사적공간의 확보에 의한 최소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둘째, 여성노숙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단계별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2006년 2월부터 서울시에서는 ‘노숙인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기반을 다지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

자리는 남성노숙인들 위주인 현장, 건설, 청소 등의 일거리들이 많으며, 여성노숙인에게 주어지는 일거리는 매우 한정적이다(경향신문, 2006. 6. 11). 그러나 청소나 식당보조 같은 일은 기본적으로 노동력과 숙련성을 요구하는 일이라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정신질환의 여성노숙인에게는 그러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계별 일자리 개척과 다양한 일자리 확보는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여성부터 숙련된 노동능력의 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셋째, 여성노숙인이 최단 거리에서 부인과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정신질환이 심할 경우에 최대한 빨리 입원조치가 가능한 정신병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노숙인의 의료서비스로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을 위한 무료진료소와 의료봉사팀이 주관하는 거리진료가 있지만 대부분은 내과와 정신과 진료가 주를 이루고 있고 남성노숙인이 줄지어 서 있는 중간 중간에 여성노숙인이 끼어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의료서비스는 여성노숙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서비스임을 지적하고, 또한 정신질환(쉼터여성 포함)이 심각한 경우 입원조치에 있어서도 행정처리가 매우 복잡하고, 여성이 갈 수 있는 병원은 청량리정신병원 한 곳 뿐이다.

넷째, 심각한 성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노숙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전문성폭력상담원을 배치해야 한다. 가장 소외되고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노숙인은 거리생활에서 남성노숙인의 폭력과 성 희롱, 성 폭력이 가장 무섭고 두렵다고 드러냈지만 그들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인권과 성적 권리를 포기하고 거리생활에 나름대로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문제와 전문성폭력상담원의 배치의 문제는 여성노숙인의 인권유린과 성적 권리침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3) 실천적 함의

첫째, 거리 아웃리치(거리상담)를 위한 여성전문상담원 보충과 다양한 거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리 아웃리치는 저녁시간대에 대부분이 이루어지며, 거리 특성상 여성전문상담원보다는 남성전문상담원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동성 간에 느낄 수 있는 친밀감, 관계성, 활용성을 비추어 볼 때 여성전문상담원의 보충은 이루어져야하며, 거리 여성노숙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써야 한다. 거리 여성노숙인은 마땅한 소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여기저리 배회하거나 남성노숙인과 뒤섞여 술판을 벌이며 하루를 보내는 것도 다반사다. 여성노숙인의 재활을 돕거나 자존감 회복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정신건강 관한 프로그램, 문화나 정서적 함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 개발은 거리 여성노숙인에게 활력소가 될 것이며 자신감 회복 및 인간관계 회복, 사회분위기 적응에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

둘째, 공공기관과 연계를 통한 가족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여성노숙인의 만성화(노숙)를 단절시켜야한다. 여성이나 남성의 노숙 만성화를 보면 사회적, 가족적 지지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여성노숙인에게 인적자원을 찾아주고 지속적인 관계형성을 만들어 주는 일은 재활과 자활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여성가족부 및 여성단체는 여성노숙인의 인권문제와 성적 권리침해에 관심을 갖고 이해 상응하는 정책, 교육 및 보호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밝힌 것처럼 여성노숙인은 자신의 인권 문제나 성적 권리에 대해 무감각하며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로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가부장제 구조에서 왜곡된 이중적 성 규범에 내면화된 면도 크게 작용되겠지만 그것 이외에도 자신들의 목소리에 경청할 사람이 없다는 불신이

작용되면서 스스로 침묵을 선택했다고 가정한다면,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의 개입은 여성노숙인에게 새로운 희망과 든든한 지원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여성노숙인의 성 인식 사례를 통해 거리노숙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성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 중에서 거리노숙의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실질적으로 거리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실생활이나 성 문제의 현장성 면에서는 제한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은 쉼터에 입소한 여성과 현재 거리노숙생활 중인 여성 사이의 간극, 즉 시간적 혹은 상황적인 거리라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여성노숙인의 성 인식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례는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성과 거리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구성된 주관적인 관점으로 기술된 연구이므로 객관적 연구로서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노숙여성 누구나 똑같이 경험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노숙상황에 처한 여성의 문제를 더욱 풍부히 이해하고, 사회적 문제로서 해결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첫째, 거리노숙이라는 폭력과 성 폭력의 위험이 가득한 세계, 그 속에서 여성노숙인의 실태와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가 이해해 보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후속연구에서는 현재 거리생활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여성의 거리노숙 생활과 성 문제에 대한 현장연구 내지는 인류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여성노숙인의 실태는 물론,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선행연구와 정보가 희박하여 모든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사회복지학 측면에서 찾다 보니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과 제한점이 있었다. 여성노숙인의 문제는 사실 여성 전체의 문제이며 누구라도 노숙이라는 현실에 들어올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여성학적 차원에서 여성이 노숙에 유입되는 과정, 만성화되는 과정, 이탈의 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여성노숙인을 거리노숙 생활의 피해자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때 가해자는 함께 노숙상황에 있는 남성노숙인들이다. 하지만 남성노숙인 또한 노숙이라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에 놓인 극단적 빈곤집단이며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만들어낸 희생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또 하나의 피해자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점 상 남성노숙인이 단지 가해자로 그리고 있다고 해서, 거리노숙을 하고 있는 남성노숙인 전체를 여성노숙인 학대의 가해자로 낙인찍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후속연구에서는 남성노숙인이 가부장제 구조 하에서 갖게 된 남성성이 거리생활을 하는 여성노숙인에 대해 어떤 심리적, 사회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참고 문헌

1. 국내 문헌

- 강남순(2001). “전통가족의 해체와 그 재구성”. 『기독교 사상』 5월호.
- 권명아(2000).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문고.
- 권태현(2000). “조선시대 기녀의 사회적 존재양태와 섹슈얼리티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광례(2001). “여성노숙인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유경(2000). “상실의 관점에서 본 홈리스문제”. 『노숙인 복지』.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노숙인복지연구회.
- 김수현(2001). 『서울시 홈리스 여성 실태와 대책』.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 김진미(2003). “거리노숙만성화 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현·이문숙(2002). 『21세기에 만나는 여성의 삶』.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2000a). 『99 연구조사백서』.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2000b). 『희망의 집 이용자의 자활실태조사 보고서』.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2003). 『거리사람들』.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 노숙인복지회(2000). 『노숙인 복지 연구』. 노숙자다시서기지원센터 노숙인복지연구회.

- 노숙인복지회 역(2002). 『노숙인 복지, 그 실천을 위해』. 노숙인다시서기지
원센터.
- 마르쿠제 헤르버트, 김정호 역(1982). 『에로스와 문명』. 양영각.
- 마셀 하웨이 · 제임스 M, 오닐, 김태련 · 김정휘 역(2002). 『남성의 폭력성에
관하여 -무엇이 여성에 대한 남성 폭력을 야기하는가?』. 이
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박용옥(2001). 『한국 여성 근대화의 역사적 맥락』. (주) 지식산업사.
- 변혜정(1999). “성폭력 의미구성과 여성의 차이”.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
성폭력상담소 엮음. 동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서울시 사회계층과 정책수요』. 개원10주년 기념
세미나.
- 서정화(2005). “여성 · 가정 노숙인의 존재와 삶”. 『여성노숙인을 아십니까?-
여성노숙인의 현실과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박찬숙 국회
의원 주최 토론회.
- 슐라미드 파이어스톤, 김예숙 역(1982). 『성의 변증법』. 풀빛.
- 얼 쇼리스(2006). “가난을 위한 희망수업”. 초청 국제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
집. 경기문화재단 · 성공회대학교.
- 엘리자베트 바덴데르, 최석 역(2004). 『남자의 여성성에 대한 편견의 역사』.
인바이로넷(주).
- 원호택 · 권석만(2004). 『이상심리학 총론』. 도서출판 학지사.
- 웍스, 제프리, 서동진 역(1994). 『섹슈얼리티 : 성의 정치』. 현실문화연구.
- 우리들의 좋은 집(2006). 내부행정자료.
- 윤태림(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도서출판 아르
케.
- 이수자(2004). 『후기 근대의 페미니즘 담론 -노동, 몸 그리고 욕망의 변증
법』. 도서출판 여이연.

- 이시백 외(2003). 『성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현숙·진춘숙(2000). “아내구타 추방 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 이호분(2003). “가해자 심리분석”. 『가정법률전문상담원 교육자료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임영인(2005). “여성·가정 노숙인 지원방안-제도를 중심으로”. 『여성노숙인을 아십니까?-여성노숙인의 현실과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박찬숙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
- 임정빈·정혜정(1997). 『성역할과 여성』. 도서출판사 학지사.
- 장윤필화(1999). 『여성·몸·성』. 또 하나의 문화.
-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한국도시연구소·보건복지부(2005). 『한국의 노숙인 2년의 흐름과 진단』
- 정태효(2000). “여성·가족노숙자 보호체계 개선방안”. 『노숙인복지 서비스체계 구축방안』.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 조혜자(2002). 『여성존재인가 과정인가』. 철학과 현실사.
- 최윤순(2002). “정신질환 노숙인의 지역사회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희경(1993). “페미니스트 인식론 연구-객관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 캐럴 페이트만, 이충훈·유영근 역(2001).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후.
- 한국성문화연구소(2001). 『청소년 성·생식보건 100문 100답』. 한국성문화연구소.
- 한국성폭력상담소(2003). 『섹슈얼리티 강의』. 도서출판 동녘.

2. 외국문헌

- Cameron, D. and Frazer, E.(1987). *The Murderer as Misogynist? feminism and Sexuality : A Reader*.
- Cockerham, William C.(1981). *Sociology of Mental Disorder*. Prentice-Hall, Inc.
- Glick, P. & Fiske, S.(1999). *Sexism and other "isms" : Independence, Stats, and the Ambivalent Content of Stereotypes*. In W. Swann, J. Langlois, & L. Gilbert(Eds.) *Sexism and Stereotypes in Modern Society*(193-222). Washington DC, APA.
- Hearn, J. & Parkin, W.(1987). *Sex at work: The Power & Paradox of Organisation Sexuality*. Wheatsheat Books LTD.
- Oakley, A.(1996). *"Sexuality" Feminism and Sexuality : A Reader*, Stevi and Sue Scott ed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Oakley, A.(1981). *"Interviewing Women: A Contradiction in Terms."* *Doing Feminist Research*. Edited by Helen Roberts. New York : Routledge. pp30-61.
- Peter S.(1992). *Homelessness and the Meaning of Home : Rooflessness or Rootless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 Pierson, J.(2001). *Tackling Social Exclusion*. Routledge.
- Patton, M. Q.(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s.
- Mitchell, J.(1974). *Psychoanalysis and Feminism : Freud, Reich, Laing and Women*. London : Allen Lane,

- Millet, K.(1970). *Sexual Politics*. Garden City, N. Y. : Doubleday.
- Muller, V.(1975). *The Formation of the State and the Oppression of Women: a Case Study in England and Wales*. New York : New School for School for Social Research.
- Todorov, T.(1984). *The conquest of America* (R. Howard, Trans.). New York : Harper and Row. (Original Work published 1982).
- Valian, V.(1998). *Why so slow? The Advancement of Women*. MIT Press.
- Watson, S, & Austeberry, H..(1986). *Housing and Homelessness : a Feminest Perspective*. London.: Routedge and Kegan Paul.
- Weeks, J.(1986). *Sexuality*. Tavistock.
- Wilson, E.(1981). *Psychoanalysis: Psychic Law and Order?* Feminist Review 8.

언론보도자료

- 경향신문. “서울시 ‘노숙인에 일자리’ 반쪽 대책” 2006. 6. 11.
- 국민일보. “아직도 파렴치범 인권 생각하나... 일부 인권단체 성폭력 근절대책에 침묵·소극적 태도”. 2006. 2. 4.
- 서울=연합뉴스. “여성노숙인 임신 모른 채 길거리서 분만, 태아살해”. 2006. 4. 13.
- 서울신문. “부자가 어찌 이럴 수가”. 2006. 2. 20.
- 서울신문. “KBS ‘추적 60분’ 서울역 노숙자들의 25시 밀착취재”. 2005. 2. 23.

서울신문. “ [젓밥힌 여성노숙자들] 19세 노숙녀 ‘8번 임신, 4번 낙태’ ”.

2005. 1. 24.

시민의 신문. “여성의 입으로, 여성의 주거권 말하기”. 2005. 7. 28.

아시아경제. “ [진단] 기로에 선 일본, 태양은 뜨는가?”. 2006. 2. 23.

ABSTRACT

A Research on Sexuality of Homeless Women
- focusing on street-experienced homeless women -

Kim Younghee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cently homeless women have become a social issue. This study primarily started with a doubt whether homeless women, surrounded by deep-seated homeless men, could seek their own safety. Thus, the aim of this thesis was to suggest that homeless women's sexuality should be regarded as a main social concern. In the patriarchal social structure where women's sexuality has been perceived as 'protected', street homeless women's sexuality seem to be treated as out-of-protection.

Therefore, this study questioned about the meaning of sexuality and femininity that homeless women themselves think of and security of homeless women in terms of sexuality. The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 of sexuality homeless women. The questions used for the interviews were unstructured in order that the homeless women could freely speak about their life experience on the

street. The eleven interviewees were selected from the shelter where I have worked as a social worker. All of the interviewees used to stay on the streets for a while in the past. The research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experience of street homelessness exposures women to arbitrary violences and makes them helpless. Street homeless women usually gain their livelihood by prostitution, and begging, collecting papers. The money they earn is used to maintain their minimal subsistence. Streets are frightening and terrible environments for homeless women. Frequently, they felt threatened and afflicted with extreme fear. That is particularly from the violences by homeless men. With the brutal street lives itself, homeless women have to put up with homeless men's violent behaviors.

Secondly, when questioned about sexuality, homeless women interviewees have narrowly regarded sexual experience as penis-centered sex. Though homeless women have their own sexual desire, they 'voluntarily and subjectively' control and suppress it. Their continence seems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patriarchal system of the society.

Thirdly, when it comes to the meaning of femininity in terms of chastity and pregnancy, they have considered chastity as a key to happy lives of women under the influence of sexual morality ideology. However, their realities have been quite the opposite; some of them had to unwillingly experience pregnancies and abortions. This study found that repeated involuntary pregnancies and abortions leded homeless women to negative sexual perception.

Fourthly, as for their sexual security, they often live through severe

sexual harassment physical and psycholog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s. Nevertheless, they only passively defend themselves, being unaware of their rights to sexual protection. Their responses were from double standards of sexuality and the lack of sexual knowledge. Also, they tend to think that nobody would help them even when they ask help. They have thought that silence is the best survival strategy on the streets.

This study explores that sexuality of homeless women is not an individual concern, but an important social issue which needs social attention and interest. It also finally provided some implication related to social policy and practices, suggesting various social welfare and programs for homeless women's sexual protection; drop-in centers specialized for homeless women; specialized medical care such as gynecologic services or psychiatric services with case management; anti-sexual violence measures such as sexual violence relief concealing for homeless women; sexuality education and safety systems for homeless women; active supports and concerns from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women's NGOs; women staffs for street out-reach; welfare networks between polices, public offices and shelters for the homeless women and so on.